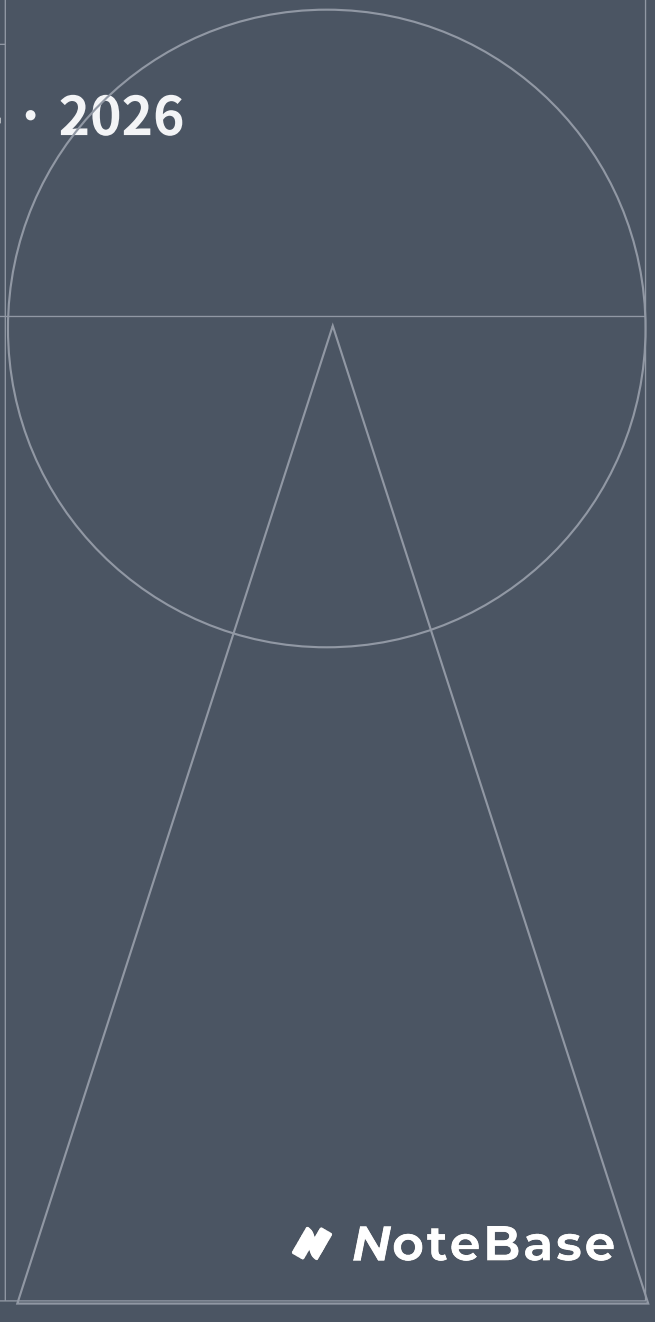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6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26

문 81. 수요와 공급곡선이 아래와 같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_D, Q_S, P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 $Q_D = 24 - 3P$
◯ $Q_S = P$

① 균형거래량은 6이다.
② 균형가격은 6이다.
③ 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3이다.
④ 시장균형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곡선의 기울기와 동일하다.
⑤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동일하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로 균형가격·균형거래량, 가격탄력성,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_D = 24 - 3P$, 공급함수는 $Q_S = P$이다.
시장균형에서는 $Q_D = Q_S$가 성립한다.
수요곡선의 가격축 절편은 $Q_D = 0$일 때의 $P = 8$이고,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은 $P = 0$이다.

사용할 공식

균형조건: $Q_D = Q_S$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 $\left|\frac{dQ_D}{dP}\frac{P}{Q_D}\right|$
공급의 가격탄력성: $\frac{dQ_S}{dP}\frac{P}{Q_S}$
삼각형의 잉여: (1)/(2)×밑변×높이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에서 구하고, 잉여는 균형가격과 각 곡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로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조건을 적용하면 $24-3P=P$이므로 $P=6$이다.
2. $P=6$을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6$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left|-3\times\frac{6}{6}\right|=3$이다.
4.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times\frac{6}{6}=1$이다.
5. 소비자잉여는 $\frac{1}{2}\times6\times(8-6)=6$이고, 생산자잉여는 $\frac{1}{2}\times6\times(6-0)=18$이다.

선지 판단

① O. 균형가격 $P=6$을 $Q_S=P$에 대입하면 균형거래량은 6이다.
② O. $24-3P=P$를 풀면 균형가격은 6이다.
③ O.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left|-3\times\frac{6}{6}\right|=3$이다.
④ O. $Q_S=P$에서 $\frac{dQ_S}{dP}=1$이고 균형점의 $P/Q_S=1$이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이 문항에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1이므로 두 값이 같다.
⑤ X. 소비자잉여는 6, 생산자잉여는 18이므로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인 '동일하다'는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의 3배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라고 해서 두 잉여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균형거래량은 두 삼각형의 공통 밑변이지만, 소비자잉여의 높이는 $8-6=2$, 생산자잉여의 높이는 $6-0=6$으로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Q_D=Q_S$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탄력성은 기울기만 보지 않고 $\frac{dQ}{dP}\frac{P}{Q}$를 계산하며, 잉여는 가격축 절편과 균형가격의 차이를 높이로 삼아 각각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의 일치, 탄력성은 기울기와 P/Q의 곱, 잉여는 균형가격 위·아래의 삼각형 넓이이다.

NoteBase

문 82. 갑의 효용함수는 $U = \min\{X, 3Y + 2Z\}$이다. X, Y, Z재의 가격이 각각 1, 9, 8이고, 소득이 8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X재 소비량은?

① 1.6

② 2

③ 4

④ 5

⑤ 7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보완재형 효용함수에서 복합재를 가장 싸게 만드는 투입재를 선택한 뒤, 두 효용 구성요소를 같게 하여 최적 소비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효용함수는 $U = \min\{X, 3Y + 2Z\}$이고 가격은 각각 $p_X = 1$, $p_Y = 9$, $p_Z = 8$, 소득은 8이다.
$3Y + 2Z$를 1단위 늘리는 비용은 Y를 사용할 때 $9/3 = 3$, Z를 사용할 때 $8/2 = 4$이다. 따라서 같은 효용을 더 싸게 만드는 Y만 사용하고 $Z = 0$으로 둔다.

사용할 공식

완전보완재형 효용에서는 낭비가 없는 최적점에서 두 구성요소가 같으므로

$X = 3Y + 2Z$

이다. 여기서는 $Z = 0$이므로 $X = 3Y$이고, 예산제약은

$X + 9Y = 8$

이다. 한쪽 구성요소만 더 늘려도 최솟값인 효용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두 구성요소를 같게 하는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복합재 1단위당 비용을 비교하면 Y는 3, Z는 4이므로 Y를 선택하고 $Z = 0$으로 둔다.
2. 효용 구성요소를 같게 하면 $X = 3Y$이다.
3.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3Y + 9Y = 8$이므로 $Y = 2/3$이다.
4. 따라서 $X = 3 \times (2/3) =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X재 소비량은 1.6이 아니라 2이다. $X = 1.6$에 지출하고 남은 6.4를 Y에 쓰면 $3Y > 1.6$이 되어 복합재 일부가 효용 증가에 쓰이지 않으므로 최적점이 아니다.
② O — 비용이 더 낮은 Y만 사용하여 $X = 3Y$와 예산제약을 함께 풀면 $X = 2$가 된다.
③ X — X재 소비량은 4가 아니라 2이다. $X = 4$이면 필요한 $Y = 4/3$의 비용까지 합한 총지출이 $4 + 9 \times (4/3) = 16$이 되어 소득 8을 초과한다.
④ X — X재 소비량은 5가 아니라 2이다. $X = 5$이면 필요한 $Y = 5/3$과 함께 총지출이 $5 + 9 \times (5/3) = 20$이 되어 예산제약을 만족하지 않는다.
⑤ X — X재 소비량은 7이 아니라 2이다. $X = 7$이면 필요한 $Y = 7/3$과 함께 총지출이 $7 + 9 \times (7/3) = 28$이 되어 소득 8을 초과한다.

오답 포인트

$3Y + 2Z$에 두 재화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Y와 Z를 함께 소비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복합재 1단위당 비용인 $p_Y/3$과 $p_Z/2$를 비교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는 더 싼 Y만 사용한다. 또한 X에 소득을 먼저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X = 3Y + 2Z$와 예산제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in\{X, aY + bZ\}$ 형태에서는 먼저 p_Y/a와 p_Z/b를 비교해 복합재를 가장 싸게 만드는 재화를 고른다. 그다음 두 효용 구성요소를 같게 놓고 예산제약과 연립하여 소비량을 구한다.

암기 포인트

복합재의 투입재 선택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효용 기여도'를 비교하고, 완전보완재의 최적점은 두 구성요소가 같은 점이다.

NoteBase

문 83. 재화 X의 시장수요함수는 $Q_D = 120 - \frac{1}{2}P$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_S = P - 3$이다. 정부가 단위당 6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_D, Q_S, P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① 소비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②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

③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동일하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단위세 부과 전후의 소비자가격·생산자수취가격·거래량을 구한 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세금 부과 전에는 하나의 시장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단위당 6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을 P_c, 생산자수취가격을 P_p라고 할 때 $P_c - P_p = 6$이다.
수요가격 절편은 $Q_D = 0$에서 240이고, 공급가격 절편은 $Q_S = 0$에서 3이다.

사용할 공식

세금 부과 전 균형은 $Q_D = Q_S$로 구한다.
세금 부과 후 균형은 $120 - \frac{1}{2}P_c = P_p - 3$과 $P_c - P_p = 6$을 함께 사용한다.
선형 수요·공급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가격선과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사이 삼각형의 넓이이므로 (1)/(2)× 밑변× 높이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1. 세금 부과 전에는 $120 - \frac{1}{2}P = P - 3$이므로 $P = 82$, $Q = 79$이다.
2. 세금 부과 후에는 $P_c = P_p + 6$을 대입하여 $120 - \frac{1}{2}(P_p + 6) = P_p - 3$을 얻는다. 따라서 $P_p = 80$, $P_c = 86$, $Q = 77$이다.
3. 소비자가격은 82에서 86으로 4 상승하고 생산자수취가격은 82에서 80으로 2 하락한다. 소비자잉여는 $\frac{1}{2}(240 - 82) \times 79 = 6{,}241$에서 $\frac{1}{2}(240 - 86) \times 77 = 5{,}929$로 312 감소한다.
4. 생산자잉여는 $\frac{1}{2}(82 - 3) \times 79 = 3{,}120.5$에서 $\frac{1}{2}(80 - 3) \times 77 = 2{,}964.5$로 156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잉여는 312, 생산자잉여는 156 감소하므로 소비자잉여가 더 많이 감소한다.
② X.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보다 더 감소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생산자잉여가 156 감소하여 312 감소한 소비자잉여보다 덜 감소한다.
③ X. '감소분은 동일하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소비자잉여 감소분 312가 생산자잉여 감소분 156의 두 배이다.
④ X.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생산자수취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낮아져 생산자잉여도 156 감소한다.
⑤ X.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여 소비자잉여도 312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세금 6만 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3씩 부담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실제 조세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기울기에 따라 나뉘며, 이 문항에서는 소비자가격이 4 상승하고 생산자수취가격이 2 하락한다. 또한 잉여 감소분은 가격 변화만이 아니라 거래량이 79에서 77로 줄어드는 효과까지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위세 문제는 세금 쐐기 $P_c - P_p = t$를 세우고 세금 전후의 가격과 거래량을 먼저 구한다. 그다음 수요·공급의 가격 절편을 이용해 세금 전후 잉여를 계산하고 감소분을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단위세의 부담은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기울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항에서는 소비자 부담 4, 생산자 부담 2이다.

NoteBase

문 84.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5 - \frac{1}{2}P$, 시장공급곡선은 $Q_S = P$이다. 정부가 재화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단위당 세금은? (단, Q_D, Q_S, P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⑤ 25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위당 세금이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 사이에 만드는 격차를 이용해 세수함수를 구하고, 그 이차함수의 최댓값을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단위당 세금을 t, 거래량을 Q, 소비자가격을 P_D, 생산자가격을 P_S라고 한다.
수요의 역함수는 $P_D = 10 - 2Q$이고, 공급의 역함수는 $P_S = Q$이다.
물품세가 부과되면 $P_D - P_S = t$이며, 조세수입은 단위당 세금과 거래량의 곱인 tQ이다.

사용할 공식

$t = P_D - P_S$
$T(t) = tQ(t)$
물품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를 만들므로 먼저 세금과 거래량의 관계를 구한 뒤, 세수 T를 세금 t의 함수로 나타낸다.

계산 과정

1. 수요와 공급의 역함수를 세금 격차식에 대입한다.
$t = (10 - 2Q) - Q = 10 - 3Q$
2. 거래량을 세금의 함수로 정리한다.
$Q(t) = \frac{10 - t}{3} \quad (0 \le t \le 10)$
3. 조세수입 함수를 구한다.
$T(t) = t \cdot \frac{10 - t}{3} = \frac{10t - t^2}{3}$
4.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T(t) = \frac{25}{3} - \frac{(t - 5)^2}{3}$
따라서 조세수입은 $t = 5$일 때 최대가 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단위당 세금이 5일 때 세수함수 $T(t)$가 최대가 되므로 옳다.
② X — 10은 세수를 극대화하는 세금이 아니다. $t = 10$이면 거래량이 0이 되어 세수도 0이 된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세금이 5일 때 세수가 극대화된다.
③ X — 15는 거래가 가능한 세금 범위 $0 \le t \le 10$을 벗어난 금지적 세금이므로 세수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세금이 5이다.
④ X — 20은 거래를 소멸시키는 금지적 세금이므로 세수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세금이 5이다.
⑤ X — 25는 거래를 소멸시키는 금지적 세금이므로 세수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단위당 세금이 5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10은 수요의 가격절편이자 거래량을 0으로 만드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세수가 항상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이 값을 고르기 쉽지만, 세금이 오르면 과세 대상 거래량이 감소한다. 또한 $Q = (10 - t)/3$을 10보다 큰 세금에 그대로 대입해 음의 거래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량세의 세수 극대화 문제에서는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차이를 세금과 같게 놓고 거래량 $Q(t)$을 구한다. 그다음 $T(t) = tQ(t)$를 만든 뒤 이차함수의 꼭짓점과 거래 가능한 세금 범위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세수는 세금 곱하기 거래량이다. 선형 수요·공급에서 세수함수가 아래로 열린 이차함수이면 꼭짓점의 세금이 세수를 극대화한다.

NoteBase

문 85. 갑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만 소비한다. 소고기의 가격만 상승하고 갑의 소득과 돼지고기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을 때, 갑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전보다 모두 적게 소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① 돼지고기는 정상재이다.

② 돼지고기는 열등재이다.

③ 소고기는 기펜재이다.

④ 소고기는 사치재이다.

⑤ 돼지고기는 필수재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소고기 가격 상승의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를 분리하여 돼지고기가 정상재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소고기 가격만 상승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싸진 돼지고기로 옮겨 가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돼지고기 소비도 감소했다. 따라서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한 경우이다.

핵심 개념

정상재는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이다.
열등재는 실질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도 음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자기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재화이다.
사치재와 필수재의 구분에는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적용 기준

소고기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방향의 대체효과와 구매력 하락에 따른 소득효과를 함께 만든다.
최종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했으므로 소득효과는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며, 돼지고기는 정상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낮아졌을 때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했으므로 돼지고기는 정상재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열등재'이다. 열등재라면 실질소득 감소의 소득효과도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방향이므로, 제시된 소비 감소를 설명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돼지고기는 정상재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펜재'이다. 기펜재는 자기 가격 상승 시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인데, 소고기 가격 상승 후 소고기 소비량은 감소했다. 올바르게는 소고기가 기펜재가 아니라는 점만 판단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사치재'라고 단정한 부분이다. 소고기의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치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올바르게는 소고기의 사치재·필수재 여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X. 틀린 표현은 '필수재'라고 단정한 부분이다. 돼지고기가 정상재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소득 변화율과 돼지고기 수요량 변화율이 없으므로 필수재인지 사치재인지는 알 수 없다. 올바르게는 돼지고기는 정상재이지만 필수재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다는 결과만 보고 두 재화가 모두 열등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소고기 가격 상승은 돼지고기로의 대체효과를 만들므로, 그 방향과 반대인 돼지고기 소비 감소는 정상재의 소득효과가 더 컸다는 뜻이다. 또한 정상재라는 사실만으로 필수재나 사치재까지 구분할 수는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재화의 가격만 변하면 먼저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의 방향을 정하고, 실제 소비량 변화가 그 방향과 같은지 반대인지 확인한다. 대체재의 소비가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면 실질소득 감소의 효과가 더 컸는지 살펴 정상재·열등재를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상승 → 대체재 소비 증가가 기본 방향이다. 그런데 대체재 소비도 감소하면 정상재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 경우이다.

NoteBase

문 86. 구매력이 화폐소득으로 주어진 모형과 실물부존(real endowment)으로 주어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비자는 두 상품에 모든 예산을 소비한다.)

ㄱ. 화폐소득모형에서 소득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선은 왼쪽으로 평행이동한다.
ㄴ. 화폐소득모형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정상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ㄷ. 실물부존모형에서 부존량이 상승하면 기존 예산선은 한 제품의 절편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ㄹ. 실물부존모형에서 가격이 변동하면 기존 예산선은 부존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화폐소득모형과 실물부존모형에서 소득·부존량·가격의 변화가 예산선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소득모형: 화폐소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예산식은 $p_x x + p_y y = m$이다. 소득이 늘면 기울기는 그대로이고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한다.
실물부존모형: 소비자가 가진 부존량의 시장가치가 구매력이 되며 예산식은 $p_x x + p_y y = p_x \omega_x + p_y \omega_y$이다. 가격이 변해도 부존점 (ω_x, ω_y)은 항상 살 수 있으므로 예산선은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ㄱ X: 소득 상승 시 예산선은 왼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한다.
ㄴ O: 정상재의 자기 가격이 변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수요량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ㄷ X: 가격이 일정할 때 부존량이 늘면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예산선은 절편을 축으로 회전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한다.
ㄹ O: 실물부존모형에서 가격 변화는 부존점을 통과한 채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꾸므로 부존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옳지만 ㄹ도 옳다. 틀린 부분은 ‘ㄴ만 옳다’는 조합이며,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소득 상승과 부존량 상승은 가격이 일정하면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평행이동시키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O — ㄴ과 ㄹ이 모두 옳다. 정상재에서는 자기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고, 실물부존모형의 예산선은 가격이 변할 때 부존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④ X — ㄱ과 ㄷ을 옳다고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ㄱ은 ‘왼쪽’이 아니라 ‘바깥쪽’, ㄷ은 ‘절편 기준 회전’이 아니라 ‘바깥쪽 평행이동’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⑤ X — ㄷ을 옳다고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부존량 상승 시 기존 예산선은 한 제품의 절편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평행이동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오답 포인트

‘소득 또는 부존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를 뒤섞는 것이 함정이다. 가격이 일정한 채 구매력만 증가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하고, 실물부존모형에서 가격이 변하면 부존점은 계속 예산선 위에 남으므로 그 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예산선의 기울기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화폐소득이나 부존량만 변하고 가격비가 그대로이면 평행이동으로 판단한다. 실물부존모형에서 가격이 변하면 부존점이 고정된 통과점이므로 부존점 중심의 회전으로 판단한다. 정상재의 자기 가격 변화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라는 점을 함께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구매력 증가·가격비 불변은 평행이동, 실물부존에서 가격 변화는 부존점 중심 회전, 정상재의 자기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NoteBase

문 87.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5L + 2K$이다. 생산량이 일정할 때, 기업 A의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관계없이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② 노동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③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④ 자본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⑤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노동과 자본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인 한계기술대체율을 한계생산의 비율로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Q = 5L + 2K$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 = 5$, 자본의 한계생산은 $MP_K = 2$이다.
두 한계생산이 투입량과 무관한 상수라는 점이 핵심이다.

사용할 공식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하는 한계기술대체율은
$MRTS_{LK} = \frac{MP_L}{MP_K}$
이다.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frac{dK}{dL} = -\frac{MP_L}{MP_K}$이고, 한계기술대체율은 그 절댓값이다. 생산량을 일정하게 하는 노동과 자본의 교환비율을 묻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5$이다.
2. $MP_K = \frac{\partial Q}{\partial K} = 2$이다.
3. 따라서 $MRTS_{LK} = \frac{5}{2}$이며, 등량곡선의 기울기는 $-\frac{5}{2}$이다.
4. 두 값은 L과 K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투입량이 변해도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MP_L = 5$, $MP_K = 2$가 모두 상수이므로 $MRTS_{LK} = \frac{5}{2}$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노동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노동 투입량이 감소해도 한계기술대체율은 $\frac{5}{2}$로 일정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노동 투입량이 증가해도 한계기술대체율은 $\frac{5}{2}$로 일정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자본의 투입량이 감소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본 투입량이 감소해도 한계기술대체율은 $\frac{5}{2}$로 일정하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자본 투입량이 증가해도 한계기술대체율은 $\frac{5}{2}$로 일정하다.

오답 포인트

②~⑤는 일반적인 볼록한 등량곡선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술대체율 체감과 이 문제의 선형 생산함수를 혼동하게 한다. 이 생산함수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이 일정하므로 어느 투입 조합에서도 교환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에서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을 먼저 구한 뒤 그 비율 MP_L/MP_K에 투입량 변수가 남는지 확인한다. 변수가 남지 않으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고, 변수가 남으면 투입량에 따라 달라진다.

암기 포인트

선형 생산함수 $Q = aL + bK$에서는 $MRTS_{LK} = a/b$로 일정하고 등량곡선은 직선이다.

NoteBase

문 88.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min\{X_1, X_2\} + \min\{X_3, X_4\}$이고, 생산요소 X_1, X_2, X_3, X_4의 가격이 각각 2, 1, 5, 3이다. 생산량(Q)이 1일 때 최소 비용은?

① 1

② 3

③ 5

④ 8

⑤ 1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보완재 묶음별 단위비용을 구한 뒤, 같은 생산량을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드는 묶음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첫째 생산방식의 산출량을 $q_1 = \min\{X_1, X_2\}$, 둘째 생산방식의 산출량을 $q_2 = \min\{X_3, X_4\}$라 두면 $Q = q_1 + q_2$이다.
각 묶음 안의 두 생산요소는 완전보완재이므로 비용을 최소화할 때 $X_1 = X_2 = q_1$, $X_3 = X_4 = q_2$로 사용한다.
구해야 할 것은 $q_1 + q_2 = 1$을 만족시키는 최소 비용이다.

사용할 공식

첫째 생산방식의 비용은
$C_1 = (2 + 1)q_1 = 3q_1$
이고, 둘째 생산방식의 비용은
$C_2 = (5 + 3)q_2 = 8q_2$
이다.
따라서 총비용은 $C = 3q_1 + 8q_2$이다. 두 생산방식의 산출량이 서로 더해지므로 단위비용이 낮은 방식을 사용하면 비용이 최소가 된다.

계산 과정

1. 첫째 생산방식으로 산출량 1을 만들려면 $X_1 = X_2 = 1$이므로 비용은 $2 + 1 = 3$이다.
2. 둘째 생산방식으로 산출량 1을 만들려면 $X_3 = X_4 = 1$이므로 비용은 $5 + 3 = 8$이다.
3. 첫째 생산방식의 단위비용 3이 둘째 생산방식의 단위비용 8보다 낮으므로 $q_1 = 1, q_2 = 0$이 최적이다.
따라서 최소 비용은 3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비용 1은 첫째 묶음에서 가격이 더 싼 X_2만 계산한 값이다. 그러나 $\min\{X_1, X_2\} = 1$이 되려면 두 요소가 모두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올바른 최소 비용은 3이다.
② O — 첫째 생산방식에서 $X_1 = X_2 = 1$로 투입하면 산출량 1을 비용 $2 + 1 = 3$에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이 최소이다.
③ X — 비용 5는 어느 생산방식의 완전한 요소 묶음 비용도 아니다. 각 묶음의 두 요소 가격을 합해 비교해야 하며 올바른 최소 비용은 3이다.
④ X — 비용 8은 둘째 생산방식에서 $X_3 = X_4 = 1$을 투입할 때의 비용이다. 생산은 가능하지만 첫째 생산방식의 비용 3보다 크므로 최소 비용은 3이다.
⑤ X — 비용 11은 두 생산방식의 단위비용 3과 8을 모두 더한 값이다. $Q = 1$을 위해 두 방식을 각각 1단위씩 가동할 필요가 없으며, 단위비용이 낮은 첫째 방식만 사용한 최소 비용은 3이다.

오답 포인트

$\min\{X_1, X_2\}$에서 가격이 싼 요소 하나만 투입해도 생산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최솟값으로 산출되는 완전보완재 묶음에서는 두 요소를 같은 양만큼 투입해야 한다. 또한 두 생산방식의 산출량은 더해지므로 두 묶음의 비용을 무조건 모두 합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비용이 낮은 방식을 선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min 묶음 안에서는 필요한 요소들의 가격을 합해 단위비용을 구한다. 여러 묶음의 산출량이 더해지는 선형 구조에서는 묶음별 단위비용을 비교하고, 생산능력 제한이 없다면 가장 싼 묶음으로 요구 산출량을 생산한다.

암기 포인트

묶음 안의 min은 요소가격의 합, 묶음 사이의 +는 가장 싼 생산방식의 선택이다.

NoteBase

문 89.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sqrt{L}K$이다. L, K의 가격은 각각 6, 2이고, 단기에서 K를 2단위 사용할 때, 기업 A의 단기 한계비용함수는? (단, Q, L, K는 각각 생산량, 노동, 자본이다.)

① $3Q$

② $6Q$

③ $3Q+2Q^2$

④ $4\sqrt{Q}$

⑤ $6\sqrt{Q}$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단기에는 자본 K가 고정되므로 생산함수에서 가변요소 L을 생산량 Q의 함수로 나타낸 뒤, 단기총비용을 Q로 미분하여 단기한계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 $Q=\sqrt{L}K$
노동가격: $w=6$
자본가격: $r=2$
단기 고정자본: $K=2$
구해야 할 값: 단기한계비용함수 $MC(Q)$

사용할 공식

단기총비용은 $STC(Q)=wL(Q)+rK$이고, 단기한계비용은
$MC(Q)=\frac{dSTC(Q)}{dQ}$
이다. 단기에는 K가 고정되어 자본비용 rK도 고정비용이므로, 이를 생산량으로 미분하면 0이 된다.

계산 과정

1. $K=2$를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Q=2\sqrt{L}$이다.
2. 이를 L에 관해 정리하면 $\sqrt{L}=Q/2$, 즉 $L=Q^2/4$이다.
3. 단기총비용은
$STC(Q)=6\left(\frac{Q^2}{4}\right)+2(2)=\frac{3}{2}Q^2+4$
이다.
4. 이를 Q로 미분하면
$MC(Q)=\frac{dSTC(Q)}{dQ}=3Q$
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계산한 단기한계비용함수 $MC(Q) = 3Q$와 일치한다.
② X — $6Q$는 총가변비용 $\frac{3}{2}Q^2$을 잘못 미분하여 계수를 두 배로 만든 값이다. 올바르게는 $3Q$이다.
③ X — 한계비용은 단기총비용을 한 번 미분한 값이므로 $3Q + 2Q^2$처럼 이차항이 남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Q$이다.
④ X — 생산함수의 $\sqrt{L}$을 비용함수에도 그대로 남기면 안 된다. $L = Q^2/4$로 바꾸어 비용을 생산량의 함수로 나타내면 올바른 한계비용은 $3Q$이다.
⑤ X — $6\sqrt{Q}$ 역시 노동투입량을 Q의 함수로 정확히 변환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3Q$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함수에 제곱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계비용도 $\sqrt{Q}$의 함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먼저 $Q = 2\sqrt{L}$을 $L = Q^2/4$로 역산해야 한다. 또한 고정자본비용 4는 단기총비용에는 포함되지만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한계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 비용함수 문제는 고정요소의 값을 생산함수에 대입하고, 가변요소 투입량을 생산량의 함수로 역산한 뒤, $STC(Q)$를 구성하여 Q로 미분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단기한계비용은 $MC = dSTC/dQ = dTVC/dQ$이다. 고정비용은 미분하면 0이므로 한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90.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가격은 불변이다.)

①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이상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다.

② 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들의 수평합이다.

③ 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수평인 직선이다.

④ 시장의 장기균형가격은 수요측에서, 장기균형거래량은 공급측에서 결정된다.

⑤ 개별기업의 장기공급량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의 단기·장기 공급곡선과 장기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단기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이상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다. 생산요소가격이 불변인 비용불변산업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진 뒤 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이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수평이 된다. 따라서 장기균형가격은 최소 평균비용이라는 공급 측 비용 조건으로 정해지고, 시장수요가 그 가격에서의 총거래량을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단기에는 시장가격이 단기평균가변비용의 최저값 이상이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범위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인 가격과 단기한계비용의 일치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지므로,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단기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이상의 단기한계비용곡선이다.

② O
단기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어렵고 이미 진입한 기업들의 수가 주어져 있다. 각 가격에서 이 기업들이 공급하는 수량을 가로로 합하면 시장의 단기공급량이 되므로 옳다.

③ O
생산요소가격이 불변이면 산업 전체의 생산량이 변해도 개별기업의 비용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므로, 시장의 장기공급곡선은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가격에서 수평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장기균형가격은 수요측에서, 장기균형거래량은 공급측에서 결정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장기균형가격이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이라는 공급 측 비용 조건에서 결정되고, 장기균형거래량은 그 가격에서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가 변하면 장기에는 기업 수가 조정되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시장거래량이 달라진다.

⑤ O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가격이 장기한계비용 및 장기평균비용의 최저값과 일치한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을 공급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측면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비용불변산업의 수평인 장기공급곡선에서는 공급 측의 최소 평균비용이 가격을 고정하고, 그 가격에서 수요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을 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는 기업 수가 고정되어 개별기업 공급곡선들을 수평합한다. 장기는 진입·퇴출을 고려하며, 생산요소가격이 불변이면 최소 장기평균비용에서 장기공급곡선이 수평이 된다. 따라서 장기에는 비용이 가격을, 수요가 시장거래량을 정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용불변산업의 장기균형은 공급 측 최소비용이 가격을 정하고, 수요가 거래량을 정한다.

NoteBase

문 91.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기술 A 또는 기술 B 중 하나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새로운 기술의 추가는 없다.)

○ 기술 A의 총비용함수: $TC_A(Q) = 900 - 30Q + Q^2$
○ 기술 B의 총비용함수: $TC_B(Q) = 400 - 20Q + Q^2$

①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 모두 시장에 존속한다.
②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③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④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서로 다르다.
⑤ 존속하는 기업들의 장기균형가격은 서로 다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술의 평균비용 최솟값을 비교하여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존속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기술 A의 총비용함수는 $TC_A(Q) = 900 - 30Q + Q^2$이고, 기술 B의 총비용함수는 $TC_B(Q) = 400 - 20Q + Q^2$이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낮은 최소평균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사용할 공식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AC(Q) = \frac{TC(Q)}{Q}$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은 $\frac{dAC}{dQ} = 0$으로 구한다. 장기균형에서 존속하는 기업은 시장가격과 최소평균비용이 일치하여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기술 A의 평균비용은 다음과 같다.
$AC_A(Q) = \frac{900}{Q} - 30 + Q$
$\frac{dAC_A}{dQ} = -\frac{900}{Q^2} + 1 = 0 \Rightarrow Q = 30$
따라서 최소평균비용은 $AC_A(30) = 30$이다.

2. 기술 B의 평균비용은 다음과 같다.
$AC_B(Q) = \frac{400}{Q} - 20 + Q$
$\frac{dAC_B}{dQ} = -\frac{400}{Q^2} + 1 = 0 \Rightarrow Q = 20$
따라서 최소평균비용은 $AC_B(20) = 20$이다.

3. 기술 B의 최소평균비용 20이 기술 A의 최소평균비용 30보다 낮다. 장기균형가격은 20이 되고, 기술 A 기업은 이 가격에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퇴출한다. 따라서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선지 판단

① X —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 모두 시장에 존속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기술 A의 최소평균비용 30은 기술 B가 결정하는 장기균형가격 20보다 높으므로 기술 A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② X — '기술 A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기술 A보다 최소평균비용이 낮은 기술 B가 선택된다. 올바르게는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③ O — 기술 B의 최소평균비용 20이 기술 A의 최소평균비용 30보다 낮으므로 장기에는 기술 B를 사용하는 기업만 존속한다.

④ X —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틀리다. 존속 기업은 모두 기술 B를 사용하고 장기균형 생산량 $Q = 20$에서 생산하므로 동일한 비용조건을 가진다. 올바르게는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서로 같다.

⑤ X — '존속하는 기업들의 장기균형가격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틀리다. 완전경쟁시장의 동일한 재화에는 하나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이 문제의 장기균형가격은 20이다. 올바르게는 존속하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장기균형가격은 서로 같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함수의 상수항만 비교하거나 같은 시장에 두 기술이 주어졌다는 이유로 두 기술이 모두 존속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장기 존속 여부는 총비용 자체가 아니라 각 기술의 최소평균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술별로 $AC = TC/Q$를 구하고, 각각의 최소평균비용을 비교한다. 가장 낮은 최소평균비용이 장기균형가격이 되며, 그보다 최소평균비용이 높은 기술은 퇴출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장기균형에서는 '최저 최소평균비용의 기술만 존속, 가격은 그 최소평균비용'이다.

NoteBase

문 92. 한계비용이 일정한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급 가격차별을 하고, 각 소비자 집단의 역수요함수는 $P = f(Y) - Q$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 Y는 소비자의 소득수준이고 $f(Y)$는 Y의 증가함수이다.)

①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적은 양을 소비한다.

②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③ 소득수준이 낮은 소비자일수록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④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많이 소비한다.

⑤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양을 소비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소득에 따라 수요곡선의 절편이 달라질 때, 3급 가격차별 독점기업이 각 집단에서 정하는 이윤극대화 가격과 판매량의 변화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비용을 c, 수요곡선의 절편을 $a = f(Y)$라고 둔다. 역수요함수는 $P = a - Q$이고, $f(Y)$는 증가함수이므로 소득 Y가 높을수록 a가 커진다. 3급 가격차별에서는 독점기업이 소비자 집단별로 $MR = MC$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총수입과 한계수입은 각각

$TR = (a - Q)Q = aQ - Q^2, \qquad MR = a - 2Q$

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MR = MC = c$를 적용하면

$Q^* = \frac{a-c}{2}, \qquad P^* = a - Q^* = \frac{a+c}{2}$

가 된다. 각 집단에서 양의 판매량이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내부해를 전제로 한다.

계산 과정

1.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함수 $f(Y)$의 값, 즉 수요곡선의 절편 a가 커진다.
2. $Q^* = (a - c)/2$이므로 a가 커질수록 최적 판매량이 증가한다.
3. $P^* = (a + c)/2$이므로 a가 커질수록 최적 가격도 상승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 집단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양을 소비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최적 가격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한다. 틀린 표현인 '더 낮은 가격'과 '더 적은 양'은 각각 '더 높은 가격'과 '더 많은 양'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a = f(Y)$가 커질수록 $P^* = (a + c)/2$와 $Q^* = (a - c)/2$가 모두 커지므로 옳다.
③ X —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지만 판매량도 더 적다. 틀린 표현인 '더 많은 양'은 '더 적은 양'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3급 가격차별에서는 집단별 수요에 맞추어 서로 다른 가격을 정한다. 틀린 표현인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은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 집단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로 고쳐야 하며,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많이 소비한다는 부분은 옳다.
⑤ X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판매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한다. 틀린 표현인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양을 소비'는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가 더 많은 양을 소비'로 고쳐야 하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부분은 옳다.

오답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가격차별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모든 집단의 역수요곡선 기울기가 같고 절편 $f(Y)$만 달라지므로, $MR = MC$에서 가격과 수량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 특히 ③은 낮은 소득 집단의 가격이 낮다는 사실에 '더 많은 양'을 잘못 결합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역수요함수 $P = a - bQ$와 일정한 한계비용 c가 주어지면 먼저 $MR = a - 2bQ$를 구하고 $MR = c$를 적용한다. 그 뒤 수요 절편 a의 변화가 최적 가격과 최적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같은 기울기의 선형수요에서 수요 절편이 커지면 독점의 최적 가격과 최적 판매량이 함께 커진다.

NoteBase

문 93.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고객 집단을 두고 경쟁한다.
ㄴ. 각 기업은 가격수용자가 아니며,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ㄷ. 제품이 차별화될수록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 수,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제품 차별화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서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하는 시장이다. 각 기업의 제품은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므로 개별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고 일정한 가격 결정력을 가진다. 제품 차별화가 강해질수록 가까운 대체재가 줄어 해당 제품의 수요는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해지므로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ㄱ만 고른 것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② X
ㄷ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가 틀렸다. 제품이 더 차별화되면 대체재가 줄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또한 옳은 ㄱ과 ㄴ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O
ㄱ은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으로 같은 고객 집단을 두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옳다. ㄴ은 제품 차별화로 개별 기업이 가격수용자가 아니며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옳다.

④ X
ㄴ은 옳지만 ㄷ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가 틀렸고 옳은 ㄱ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제품 차별화가 강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지며,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제품이 차별화될수록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는 표현은 '제품이 차별화될수록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진다'로 고쳐야 하므로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제품 차별화가 커지면 소비자의 반응도 커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대체재가 줄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이 약해진다. 따라서 ㄷ의 '가격탄력성이 커진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적 경쟁은 '다수 기업·제품 차별화·우하향하는 개별 수요곡선'으로 판단한다. 차별화가 강해지면 대체재가 줄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지고, 차별화가 약해지면 대체재가 많아져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암기 포인트

차별화 증가 → 대체재 감소 → 수요의 가격탄력성 감소이다.

NoteBase

문 94. 슈타켈버그(Stackelberg) 복점 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 - P$이고, 선도기업 A와 추종기업 B의 한계비용은 모두 8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A, B 두 기업의 생산량 차이는? (단, Q_D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1

② 3

③ 5

④ 7

⑤ 11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슈타켈버그 복점에서 추종기업의 반응함수를 먼저 구한 뒤, 선도기업이 그 반응을 예상하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수요는 $Q_D = 20 - P$이므로 역수요함수는 $P = 20 - (q_A + q_B)$이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모두 8이므로 각 기업의 단위당 이윤은 $P - 8 = 12 - q_A - q_B$이다.
구해야 할 값은 선도기업 A와 추종기업 B의 생산량 차이 $q_A - q_B$이다.

사용할 공식

추종기업 B의 이윤은
$\pi_B = (12 - q_A - q_B)q_B$
이다. B가 자신의 생산량에 대해 이윤을 극대화하면 반응함수는
$q_B = \frac{12 - q_A}{2}$
가 된다.

선도기업 A는 이 반응함수를 자신의 이윤함수에 대입하여 생산량을 정한다.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선도기업이 추종기업의 최적 반응을 예상하고 먼저 생산량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B의 일계조건은 $\frac{\partial \pi_B}{\partial q_B} = 12 - q_A - 2q_B = 0$이므로 $q_B = (12 - q_A)/2$이다.
2. 이를 A의 이윤함수에 대입하면
$\pi_A = (12 - q_A - q_B)q_A = \left(6 - \frac{q_A}{2}\right)q_A$
이다.
3. A의 일계조건은 $\frac{d\pi_A}{dq_A} = 6 - q_A = 0$이므로 $q_A = 6$이다.
4. B의 반응함수에 대입하면 $q_B = (12 - 6)/2 = 3$이다.
5. 두 기업의 생산량 차이는 $q_A - q_B = 6 - 3 = 3$이다.

선지 판단

① X — 생산량 차이는 1이 아니라 3이다. 올바르게는 $q_A - q_B = 3$이다.
② O — $q_A = 6$, $q_B = 3$이므로 생산량 차이는 3이다.
③ X — 생산량 차이는 5가 아니라 3이다. 올바르게는 $q_A - q_B = 3$이다.
④ X — 생산량 차이는 7이 아니라 3이다. 올바르게는 $q_A - q_B = 3$이다.
⑤ X — 생산량 차이는 11이 아니라 3이다. 올바르게는 $q_A - q_B = 3$이다.

오답 포인트

두 기업이 동시에 생산량을 정하는 쿠르노 모형처럼 대칭 생산량을 구하면 안 된다. 또한 시장 전체 생산량이나 한 기업의 생산량을 묻는 것이 아니라 $q_A - q_B$를 묻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두 생산량의 차이를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슈타켈버그 수량경쟁에서는 '추종기업의 반응함수 도출 → 반응함수를 선도기업의 이윤함수에 대입 → 선도기업 생산량 결정 → 추종기업 생산량 결정'의 역진귀납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동일한 한계비용을 가진 선형수요 슈타켈버그 모형에서는 선도기업이 추종기업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이 문항에서는 $q_A = 6$, $q_B = 3$, 차이는 3이다.

NoteBase

문 95. 다음은 갑과 을의 게임이다. 갑은 남쪽, 을은 동쪽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라면 성립하는 조건은? (단, 일회성 동시게임이고, 괄호 안의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의 보수이며 A, B, C, D는 양의 상수이다.)

		을	
		서쪽	동쪽
갑	북쪽	(A, 10)	(B, 10)
	남쪽	(10, C)	(10, D)

① B < 10, C < D

② B < C, D < 10

③ B > 10, D < 10

④ C < 10, B < 10

⑤ A < 10, B < D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보수행렬에서 (갑의 남쪽, 을의 동쪽)이 서로의 전략에 대한 최적반응인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괄호의 왼쪽 보수로 갑을, 오른쪽 보수로 을을 판단한다.

보수행렬 판단

을이 동쪽을 선택했을 때 갑의 보수는 북쪽이면 B, 남쪽이면 10이므로 갑이 남쪽을 선택할 조건은 $B < 10$이다. 갑이 남쪽을 선택했을 때 을의 보수는 서쪽이면 C, 동쪽이면 D이므로 을이 동쪽을 선택할 조건은 $C < D$이다. 따라서 두 전략이 서로 최적반응이 되는 조건은 $B < 10$, $C < D$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B < 10$이면 을이 동쪽일 때 갑은 남쪽을 선택하고, $C < D$이면 갑이 남쪽일 때 을은 동쪽을 선택한다. 두 전략이 서로 최적반응이므로 제시된 조합이 내쉬균형이 된다.
② X — '$B < C, D < 10$'은 서로 다른 칸의 보수를 잘못 비교한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동쪽 열에서 갑의 B와 10을 비교하고 남쪽 행에서 을의 C와 D를 비교하여 $B < 10, C < D$가 되어야 한다.
③ X — '$B > 10$'이면 을이 동쪽일 때 갑은 남쪽의 10보다 북쪽의 B를 더 선호하므로 남쪽을 유지하지 않는다. 또한 '$D < 10$'은 을의 보수끼리 비교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B < 10, C < D$이다.
④ X — '$B < 10$'은 갑의 조건으로 맞지만 '$C < 10$'만으로는 을이 동쪽을 선택하는지 알 수 없다. 을의 두 보수 C와 D를 비교하여 $C < D$로 고쳐야 한다.
⑤ X — '$A < 10$'은 을이 서쪽을 선택한 경우의 갑 보수를 비교한 조건이고, '$B < D$'는 서로 다른 플레이어의 보수를 비교한 조건이다. 올바르게는 동쪽 열의 갑 보수에서 $B < 10$, 남쪽 행의 을 보수에서 $C < D$이다.

오답 포인트

내쉬균형은 행렬에 있는 숫자를 임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을 고정한 뒤 한 플레이어의 보수만 비교한다. 갑은 같은 열의 왼쪽 보수끼리, 을은 같은 행의 오른쪽 보수끼리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보 전략 조합에서 한 플레이어씩만 전략을 바꿔 본다. 상대방의 전략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바꾸어 보수를 높일 수 없다면 그 조합은 내쉬균형이다.

암기 포인트

행 플레이어는 같은 열의 왼쪽 보수, 열 플레이어는 같은 행의 오른쪽 보수를 비교한다.

NoteBase

문 96. 오염물질 G 단위를 저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TAC = 40G - G^2$, 환경적 편익은 $TB = \frac{3}{2}G^2$이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오염물질 저감량은?

① 0

② 5

③ 8

④ 10

⑤ 2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각각 미분하여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오염물질 저감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저감비용은 $TAC = 40G - G^2$이고, 총환경편익은 $TB = \frac{3}{2}G^2$이다.
구해야 할 값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물질 저감량 G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저감량의 조건은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일치이다.

$MB = MC$

총환경편익을 미분하면 한계편익이 되고, 총저감비용을 미분하면 한계비용이 되므로 이 조건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한계편익을 구한다.

$MB = \frac{dTB}{dG} = 3G$

2. 한계비용을 구한다.

$MC = \frac{dTAC}{dG} = 40 - 2G$

3. 두 값을 같게 놓는다.

$3G = 40 - 2G$

$5G = 40$

$G = 8$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G=0$에서는 $MB=0$, $MC=40$으로 서로 같지 않다. 0이 아니라 $G=8$로 고쳐야 한다.
② X — $G=5$에서는 $MB=15$, $MC=30$으로 서로 같지 않다. 5가 아니라 $G=8$로 고쳐야 한다.
③ O — $G=8$에서는 $MB=24$, $MC=24$로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④ X — $G=10$에서는 $MB=30$, $MC=20$으로 서로 같지 않다. 10이 아니라 $G=8$로 고쳐야 한다.
⑤ X — $G=20$에서는 $MB=60$, $MC=0$으로 서로 같지 않다. 20이 아니라 $G=8$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총편익 TB와 총비용 TAC 자체를 같게 놓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미분한 한계편익 MB와 한계비용 MC를 같게 놓아야 한다. 또한 $-G^2$을 미분할 때 부호를 유지하여 $-2G$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회적 최적 수량을 묻는 계산에서는 총편익을 미분해 MB, 총비용을 미분해 MC를 구한 뒤 $MB=MC$를 풀고 선지에 대입하여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최적 저감량의 기본 조건은 $MB=MC$이다.

NoteBase

문 97. 갑과 을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과 을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은 동일하다.

② 효용이 높은 사람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강조한다.

③ 사회후생은 갑과 을의 효용의 합으로 정의된다.

④ 사회후생은 갑과 을의 효용 중 큰 값으로 정의된다.

⑤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롤즈의 사회후생함수가 사회 구성원 중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의 효용을 기준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U_갑,U_을)로 나타낸다. 두 사람 중 더 낮은 효용이 사회후생을 결정하므로 최저 효용을 높이는 분배를 중시한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합을 중시하지만,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가장 불리한 사람의 효용을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은 동일하다'이다. 롤즈의 기준은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같다는 가정이 아니라 두 사람 중 더 낮은 효용을 사회후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효용이 높은 사람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정책'이다. 실제로는 효용이 가장 낮은 사람, 즉 가장 불리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을 중시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효용의 합'이다. 효용의 합으로 사회후생을 정의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이며, 롤즈의 사회후생은 두 사람의 효용 중 작은 값으로 정의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큰 값'이다. 롤즈의 사회후생은 두 사람의 효용 중 작은 값으로 정의된다.
⑤ O — 사회후생이 두 사람의 효용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되므로 같은 사회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사회무차별곡선은 두 사람의 효용이 같은 지점에서 꺾이는 L자 형태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효용의 합'은 공리주의, ④의 '큰 값'은 롤즈의 최소효용 기준과 반대되는 표현이다. 롤즈를 단순한 평등주의로만 기억하면 ①의 한계효용 동일 가정과 혼동하기 쉽지만, 핵심은 효용의 동일성이 아니라 최저 효용의 극대화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롤즈가 나오면 먼저 사회후생을 결정하는 값이 최저 효용인지 확인한다. '최소값·가장 불리한 사람·최저 효용 극대화·L자형 사회무차별곡선'은 롤즈와 연결하고, '효용의 합'은 공리주의와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롤즈는 최소값, 공리주의는 합이다. 최소값 기준의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형이다.

NoteBase

문 98. 다음 중 역선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렌터카의 보험을 구매한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할 때가 있다.

② 중고차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차만 거래된다.

③ 부재지주가 소작인보다 토지 관리를 더 잘한다.

④ 공유지는 사유지에 비하여 토질의 저하가 심하다.

⑤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 전에 숨겨진 특성 때문에 불리한 상대가 더 많이 선택되는 역선택과, 거래 후 숨겨진 행동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 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선택: 정보 비대칭 때문에 거래 전에 품질이 낮거나 위험이 큰 유형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거래 전·숨겨진 특성'이다.
도덕적 해이: 계약이나 보험 가입 뒤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이 완전히 관찰하기 어려워 더 위험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현상이다. 키워드는 '거래 후·숨겨진 행동'이다.
공유지의 비극: 배제는 어렵지만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는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되는 현상이다.
긍정적 외부효과: 어떤 행위의 편익 일부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돌아가 시장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보험 가입 뒤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은 계약 후 행동이 달라지는 도덕적 해이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역선택의 사례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보험 가입 후의 부주의한 운전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이다.
② O — 판매자는 중고차의 품질을 구매자보다 더 잘 안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해 평균적인 가격만 제시하면 좋은 차의 판매자는 시장을 떠나고 품질이 낮은 차가 남게 되므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③ X — 부재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핵심 문제는 거래 전에 불리한 유형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지주가 소작인의 관리 노력과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대리인 문제이다. 틀린 표현은 '부재지주가 소작인보다 토지 관리를 더 잘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부재지주는 소작인의 관리 노력을 충분히 관찰하기 어려워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다.
④ X — 공유지의 토질이 더 심하게 저하되는 것은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되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역선택의 사례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공유지의 과잉 이용과 토질 저하는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한다'이다.
⑤ X — 국가장학금으로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장려하거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역선택의 사례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국가장학금은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보험이라는 소재만 보고 역선택으로 판단하기 쉽다. 보험 가입 전 가입자의 위험 유형을 보험사가 구별하기 어려우면 역선택이고, 보험 가입 후 가입자의 행동이 부주의해지면 도덕적 해이이다. 이 문항의 ①은 명시적으로 보험 구매 후 행동을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보 비대칭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점을 확인한다. 계약 전 상대방의 품질·위험 유형이 숨겨져 있으면 역선택, 계약 후 노력·주의 같은 행동이 숨겨져 있으면 도덕적 해이로 판단한다. 자원의 과잉 이용은 공유지의 비극, 제3자에게 퍼지는 편익을 장려하는 지원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보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계약 전 숨은 유형은 역선택, 계약 후 숨은 행동은 도덕적 해이이다.

NoteBase

문 99.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CPI는 파셰(Paasche)지수로 분류된다.

② CPI는 국내에서만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③ CPI는 가격 변화에 따른 연간 소비량 변화를 무시한다.

④ GDP 디플레이터는 해외에서만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⑤ CPI는 상품의 질적 향상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CPI와 GDP 디플레이터를 지수 산정에 사용하는 수량, 포함하는 재화·서비스의 범위, 측정상의 편향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PI는 기준연도의 소비 묶음을 고정하여 그 구입비용의 변화를 측정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의 물가지수이다.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 소비재도 포함될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며, 당해 연도의 생산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는 파셰 방식의 물가지수이다.
따라서 CPI는 고정된 소비량을 사용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당해 연도의 생산량 변화를 반영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CPI를 파셰지수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CPI는 기준연도의 소비량을 가중치로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지수로 분류된다.
② X — '국내에서만 생산된'이라는 범위가 틀렸다. CPI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하는 대표 소비 묶음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 소비재도 포함될 수 있다.
③ O — CPI는 기준연도의 소비 묶음을 고정하므로 가격이 변해 소비자가 구매량이나 품목 구성을 바꾸더라도 그 연간 소비량 변화를 지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X — '해외에서만 생산된'이라는 범위가 틀렸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에서 생산된 수입품은 제외한다.
⑤ X —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한다는 방향이 틀렸다. 상품의 질적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품질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순수한 물가 상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보다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소비량 변화를 무시한다'는 표현은 CPI의 고정 소비 묶음이라는 성격을 말한다. 이를 소비 대상 자체를 국내 생산품으로 한정한다는 뜻과 혼동하면 ②를 고르기 쉽다. 또한 품질 향상 미반영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방향의 편향을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중치를 확인한다. 기준연도 소비량 고정이면 CPI·라스파이레스, 당해 연도 생산량이면 GDP 디플레이터·파셰이다. 다음으로 범위를 확인한다. CPI는 소비자의 구매 대상이라 수입 소비재를 포함할 수 있고,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물만 포함한다.

암기 포인트

CPI는 '기준 소비 묶음 고정', GDP 디플레이터는 '현재 국내 생산량 반영'이다. 품질 향상 미반영과 대체편향은 CPI가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요인이다.

NoteBase

문 100.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전고용이 성립한다.

②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③ 외생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④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한다.

⑤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전학파가 전제하는 완전고용, 가격의 신축성, 세이의 법칙, 화폐의 중립성과 대부자금시장에서 투자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학파는 임금·물가·이자율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한다고 본다.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은 자금의 공급이고 투자는 자금의 수요이다. 외생적인 투자 증가는 자금 수요를 늘리므로 균형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이 그에 상응하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관점이며,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량의 변화가 실질산출량이나 고용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명목변수만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전학파에서는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완전고용이 성립한다.
② O —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은 시장의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을 해소하여 균형과 완전고용을 회복하게 하는 핵심 전제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외생적인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이다. 실제로는 투자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면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므로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④ O — 고전학파에서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여 일반적인 공급과잉이나 총수요 부족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⑤ O — 고전학파의 고전적 이분법에 따르면 화폐량의 변화는 물가 등 명목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실질산출량과 고용 등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투자를 저축과 혼동하게 만든다. 저축 증가는 대부자금의 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지만, 투자 증가는 대부자금의 수요를 늘려 이자율을 높인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은 공급, 투자는 수요로 분류한다. 투자 증가가 나오면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과 균형이자율 상승을 연결하고, 저축 증가가 나오면 공급곡선의 우측 이동과 균형이자율 하락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고전학파는 신축적 가격·완전고용·세이의 법칙·화폐 중립성이다. 투자 증가는 자금 수요 증가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

NoteBase

문 101. 폐쇄경제 하의 케인즈 국민소득 결정 기본모형에서 승수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투자, 정부지출, 조세는 모두 외생변수이다.)

① 정부지출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② 투자 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이다.

③ 균형 예산 승수는 1이다.

④ 구축효과로 정부지출 승수는 커진다.

⑤ 유동성 함정에서 정부지출 승수는 0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폐쇄경제의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투자승수·조세승수와 균형예산승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함수는 $C = C_0 + c(Y - T)$, 균형조건은 $Y = C + I + G$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c는 한계소비성향이며 $0 < c < 1$이다. 투자, 정부지출, 조세가 외생변수이므로 이들의 변화가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승수로 계산한다.

사용할 공식

정부지출승수와 투자승수는 각각 $\frac{1}{1-c}$이고, 조세승수는 $-\frac{c}{1-c}$이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크기만큼 늘릴 때의 균형예산승수는 $\frac{1}{1-c} - \frac{c}{1-c} = 1$이다. 정부지출과 투자는 총수요에 직접 더해지지만, 조세 변화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거쳐 총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수의 크기와 부호가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한계소비성향의 역수'가 틀린 표현이다. 정부지출승수는 $\frac{1}{1-c}$, 즉 한계저축성향 $1-c$의 역수이다.
② X — 투자승수도 한계소비성향의 역수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투자승수가 $\frac{1}{1-c}$, 즉 한계저축성향의 역수이다.
③ O —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면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합이 1이므로 균형예산승수는 1이다.
④ X — '구축효과로 정부지출승수는 커진다'가 틀린 표현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를 유발하여 국민소득 증가분을 줄이는 효과이므로, 올바르게는 정부지출승수를 작게 만든다.
⑤ X — '유동성 함정에서 정부지출승수는 0이다'가 틀린 표현이다. 유동성 함정에서는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이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지는 반면,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작아져 정부지출승수가 0이 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커진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는 '한계소비성향의 역수'와 '한계저축성향의 역수'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또한 ④는 구축효과의 방향을 반대로 제시했고, ⑤는 유동성 함정에서 효과가 약해지는 정책을 재정정책으로 잘못 연결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지출과 투자는 $\frac{1}{1-c}$, 조세는 $-\frac{c}{1-c}$를 적용한다.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크기로 변하면 두 승수를 더해 1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구축효과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줄이고, 유동성 함정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방향도 함께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지출·투자승수는 한계저축성향의 역수, 조세승수는 음수, 균형예산승수는 1이다.

NoteBase

문 102.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률 변화와 실질 GDP 성장률의 관계를 말한다.

②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동일한 실업률 변화에도 실질 GDP 성장률은 상승한다.

③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2% 상승한다.

④ 고용없는 성장이 발생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실업률은 경기침체기에 증가하고 경기확장기에 감소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오쿤의 법칙이 실업률의 변화와 실질 GDP 성장률 사이의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실질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하락할수록 실질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험적 관계이다.
성장률 형태는 보통 $g_Y = \bar{g} - \beta \Delta u$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g_Y는 실질 GDP 성장률, $\bar{g}$는 실업률을 변화시키지 않는 기준 성장률, Δu는 실업률 변화, $\beta > 0$는 오쿤계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실업률의 변화와 실질 GDP 성장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다. 실업률 변화와 산출량 증가율을 연결한다.

② O
동일한 실업률 변화 Δu가 주어졌을 때 기준이 되는 장기 성장률 $\bar{g}$가 높아지면 실질 GDP 성장률 g_Y도 높아진다.

③ X
틀린 표현은 "실업률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2% 상승한다"이다. 실업률과 실질 GDP 성장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전형적인 오쿤계수를 2로 가정하면 실업률이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2%p 하락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고용 없는 성장에서는 산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실업률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률 변화와 성장률 사이의 통상적인 오쿤 관계가 약해지거나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⑤ O
경기침체기에는 생산과 노동수요가 줄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확장기에는 생산과 노동수요가 늘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오쿤의 법칙이 전제하는 경기변동상의 역관계와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오쿤계수의 대표값인 2에 주목하게 한 뒤 변화 방향을 뒤집은 선지이다. 핵심 오류는 수치 자체보다 "상승"이라는 방향 표현이다. 또한 실업률은 %가 아니라 %p 단위로 변화를 읽고, 성장률 변화도 %p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률 변화 앞에 음의 부호가 붙는 관계부터 확인한다. 실업률 상승이면 실질 GDP 성장률 하락, 실업률 하락이면 실질 GDP 성장률 상승으로 판단한다. 장기 성장률은 동일한 실업률 변화에서 성장률 식의 기준선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항이다.

암기 포인트

오쿤의 법칙은 실업률과 실질 GDP 성장률의 역관계이다. 실업률은 올라가면 성장은 내려간다.

NoteBase

문 103. 경제학자들의 거시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J. M. Keynes)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② 프리드먼(M. Friedman)은 통화정책의 중대한 실수로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③ 펠프스(E. Phelps)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④ 맨큐(N. G. Mankiw)는 메뉴비용에 기초해 신축적 가격변동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

⑤ 루카스(R. Lucas)는 합리적 기대가 경제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시경제학자와 그 학자의 대표 주장·이론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케인즈: 유효수요 부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에는 정부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프리드먼: 대공황의 심화 원인을 통화당국의 통화정책 실패와 통화량 급감에서 찾았다.
펠프스: 장기에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돌아가므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지속적인 상충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맨큐: 메뉴비용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즉시 조정하지 않아 가격이 경직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루카스: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정책 효과와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케인즈는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② O — 프리드먼은 통화당국이 통화량 감소와 은행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통화정책상의 실패가 미국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③ O — 펠프스는 기대가 조정되는 장기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안정적인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신축적 가격변동'이다. 메뉴비용은 기업의 가격 조정에 비용이 들어 가격이 즉시 변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므로, 올바르게는 '메뉴비용에 기초해 가격의 경직성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다'이다.
⑤ O — 루카스는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며, 이러한 기대가 행동과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맨큐와 메뉴비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뒤 그 결론만 '신축적 가격변동'으로 뒤집었다. 메뉴비용은 가격을 자주 바꾸기 어렵게 하는 비용이므로 가격의 신축성이 아니라 경직성을 설명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별 대표 연결어를 확인한 뒤 연결어의 방향까지 판단한다. 특히 메뉴비용이 나오면 가격 조정이 지연되어 가격이 경직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는 재정정책, 프리드먼은 통화정책 실패와 대공황, 펠프스는 장기 상충관계 부정, 맨큐는 메뉴비용과 가격경직성,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이다.

NoteBase

문 104.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폐는 실질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임금 및 이자율 변화가 기간 간 노동대체를 초래한다.

③ 생산성 충격이 경기변동의 원인이다.

④ 가격의 경직성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

⑤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적임을 전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의 대표 가정과 경기변동 원인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완전경쟁과 신축적인 가격을 전제로 하며, 생산성 같은 실물 충격에 대한 합리적인 반응으로 경기변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화폐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의 변화가 노동과 여가의 기간 간 대체를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물경기변동이론은 화폐의 중립성을 전제하므로 화폐량 변화가 장기적인 실질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② O —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의 변화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노동 공급 시점을 조정하게 하므로 기간 간 노동대체를 초래한다.
③ O —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하락과 같은 생산성 충격을 경기변동의 핵심 원인으로 본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가격의 경직성'이다. 올바르게는 가격이 신축적이고 시장이 계속 청산된다고 전제하며, 경기변동은 생산성 같은 실물 충격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⑤ O — 실물경기변동이론의 기본 모형은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전제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의 '가격의 경직성'은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이는 실물경기변동이론이 아니라 새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설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물·생산성 충격, 화폐 중립성, 신축적 가격, 시장청산, 완전경쟁, 기간 간 대체'와 연결하고, '명목적 충격이나 가격 경직성'과 연결된 선지는 배제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실물경기변동이론 = 생산성 충격 + 신축적 가격 + 시장청산.

NoteBase

문 105.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로(R. Barro)에 의하면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효용까지 고려했을 경우, 생명이 유한해도 성립한다.

② 민간의 입장에서 국채는 미래의 조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성립한다.

③ 조세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비자가 근시안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의 조세 감면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미래의 조세 증가로 상쇄되어 성립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핵심 조건과, 유동성 제약·근시안적 소비·세대 간 부담 차이처럼 정리를 깨뜨리는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의 대등정리는 정부지출이 같을 때 감세분을 국채로 조달해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장래의 증세를 예상하여 감세분을 저축하므로 현재 소비와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이다.
성립의 핵심에는 미래 조세를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 완전한 자본시장과 유동성 제약의 부재, 현재 감세의 수혜자와 미래 조세 부담자의 이해관계 연결 등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배로의 세대 간 이타주의 모형에서는 현세대가 자녀 등 미래 세대의 효용을 고려한다. 유산을 통해 세대가 연결되므로 개인의 수명이 유한하더라도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자신의 부담처럼 반영할 수 있다.
② O — 국채 발행으로 현재 조세가 줄어도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래 조세가 늘어난다. 민간이 이를 예상하면 국채를 순자산으로 보지 않고 감세분을 저축하므로 대등정리가 성립한다.
③ O — 현재 감세의 수혜자와 미래 증세의 부담자가 다르고 이들 사이에 이타적 연결도 없다면 감세 수혜자가 미래 조세를 자신의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 반응이 나타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O — 근시안적 소비자는 미래의 증세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고 현재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이는 미래 조세를 완전히 내다본다는 성립 조건을 위배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 성립한다'이다. 유동성 제약이 있는 가계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충분히 차입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감세로 가처분소득이 늘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올바르게는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현재 감세와 미래 증세가 소비에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아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현재 감세와 미래 증세의 회계상 합계가 상쇄된다는 점을 소비 효과까지 상쇄된다는 주장으로 바꾼 선지이다.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시점 자체가 중요하므로 두 정책의 효과가 같지 않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가 미래 조세로 인식되는지, 소비자가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지, 자유롭게 차입·저축할 수 있는지, 현재 수혜자와 미래 부담자의 이해관계가 연결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깨지면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국채는 미래 조세, 감세분은 저축이라는 연결은 미래예측과 자본시장 접근이 가능할 때 성립한다.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현재 현금이 소비를 늘려 대등성이 깨질 수 있다.

NoteBase

문 106. 다음과 같이 주어진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IS: $Y = C(Y - T, Y^e) + I(r, x) + G$
◯ LM: $r = \bar{r}$
(단, Y는 현재 소득, Y^e는 미래 소득 기댓값, T는 세금, r은 이자율, $\bar{r}$는 정책 이자율, x는 불확실성,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이다.)
※ 소비는 가처분소득과 미래 소득 기댓값의 양(+)의 함수이고, 투자는 이자율과 불확실성의 음(-)의 함수이며, 한계소비성향은 0과 1 사이이다.

① 정책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 소득은 증가한다.
② 미래 소득 기댓값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③ 세금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④ 정부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현재 소득은 감소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중앙은행이 정책 이자율을 고정하는 수평 LM곡선에서 외생변수의 변화가 균형소득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LM식이 $r = \bar{r}$이므로 균형 이자율은 정책 이자율로 고정된다.
소비의 현재 가처분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을 C_Y라 하면 $0 < C_Y < 1$이다. 또한 $C_{Y^e} > 0$, $I_r < 0$, $I_x < 0$이다.

사용할 공식

IS식을 전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 C_Y)dY = -C_Y dT + C_{Y^e} dY^e + I_r dr + I_x dx + dG$
여기서 $1 - C_Y > 0$이므로 우변 변화의 부호와 dY의 부호가 같다. 또한 $dr = d\bar{r}$이며, 정책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한 재정지출이나 기대 변화가 있어도 $dr = 0$이다.

계산 과정

1. 각 외생변수의 변화가 소비 또는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 확인한다.
2. 그 변화의 부호를 IS식의 우변에 대입해 균형소득 Y의 방향을 판단한다.
3. 이자율은 LM식 $r = \bar{r}$에 의해 정책 이자율로 고정된다는 점을 별도로 적용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정책 이자율이 하락하면 $dr < 0$이고 $I_r < 0$이므로 $I_r dr > 0$이다. 투자가 증가하여 현재 소득이 증가한다.

② X — 미래 소득 기댓값이 증가하면 소비와 현재 소득은 증가하지만, LM식이 $r = \bar{r}$이므로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인 '이자율은 상승한다'는 '현재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정책 이자율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세금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식에서 $-C_Y dT < 0$이므로 현재 소득이 감소한다.

④ O — 정부지출 증가는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현재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이자율은 $r = \bar{r}$로 고정되므로 상승하지 않는다.

⑤ O —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dx > 0$이고 $I_x < 0$이므로 $I_x dx < 0$이다. 투자가 감소하여 현재 소득이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일반적인 우상향 LM곡선을 떠올리면 IS곡선의 우측 이동이 이자율을 높인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LM곡선은 $r = \bar{r}$인 수평선이므로 미래 소득 기대, 세금, 정부지출, 불확실성의 변화는 이자율이 아니라 현재 소득을 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LM식이 이자율을 고정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소비·투자·정부지출의 증감으로 IS곡선의 이동 방향을 정하고, 수평 LM곡선에서는 균형소득만 조정된다고 판단한다. 정책 이자율 자체가 변할 때에만 균형 이자율도 함께 변한다.

암기 포인트

수평 LM은 '이자율 고정, IS 충격은 소득 조정'이다.

NoteBase

문 107.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2\sqrt{k}$이고, 감가상각률은 0.1이다.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이다.)

① 0

② 0.5

③ 1

④ 1.5

⑤ 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황금률 자본량에서는 1인당 소비가 최대가 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황금률 자본량과 이를 유지하는 저축률을 구한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y = f(k) = 2\sqrt{k}$이고 감가상각률은 $\delta = 0.1$이다.
구해야 할 값은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을 달성하는 저축률 s이다.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상태 조건은 $sf(k) = \delta k$, 황금률 조건은 $f'(k) = \delta$이다.

사용할 공식

황금률 조건:
$f'(k_{GR}) = \delta$
정상상태 조건:
$sf(k_{GR}) = \delta k_{GR}$
황금률은 정상상태 소비 $c = f(k) - \delta k$를 최대로 만드는 자본량이므로 $f'(k) = \delta$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한 자본량을 정상상태 투자 조건에 대입하면 필요한 저축률을 얻는다.

계산 과정

1. $f(k) = 2\sqrt{k}$의 한계생산은 $f'(k) = 1/\sqrt{k}$이다.
2. 황금률 조건을 적용하면
$\frac{1}{\sqrt{k_{GR}}} = 0.1$
이므로 $\sqrt{k_{GR}} = 10$, $k_{GR} = 100$이다.
3. 이때 생산량은 $f(100) = 2\sqrt{100} = 20$이고 감가상각을 보충하는 투자는 $0.1 \times 100 = 10$이다.
4. 정상상태 조건 $s \times 20 = 10$에서 $s = 0.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저축률 0이면 투자가 없어 양(+)의 황금률 자본량 $k_{GR} = 100$을 유지할 수 없다. 틀린 값 0은 올바르게는 0.5이다.
② O — 황금률 자본량에서 필요한 투자 10을 생산량 20으로 나누면 저축률은 $10/20 = 0.5$이다.
③ X — 저축률 1은 생산량 전부를 저축하여 정상상태 자본량이 황금률보다 커지고 소비가 0이 된다. 틀린 값 1은 올바르게는 0.5이다.
④ X — 저축률은 생산량 중 저축하는 비율이므로 1.5가 될 수 없으며, 계산된 비율은 0.5이다. 틀린 값 1.5는 올바르게는 0.5이다.
⑤ X — 저축률 2는 생산량의 200%를 저축한다는 뜻이어서 허용 범위 $0 \leq s \leq 1$을 벗어난다. 틀린 값 2는 올바르게는 0.5이다.

오답 포인트

황금률 조건 $f'(k) = \delta$로 바로 구하는 것은 저축률이 아니라 황금률 자본량이다. 먼저 k_{GR}을 구한 뒤 정상상태 조건 $sf(k) = \delta k$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또한 ③의 1은 최대 저축률일 뿐 최대 소비를 뜻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황금률 문제는 $f'(k_{GR}) = \delta$로 자본량을 구하고, $s = \delta k_{GR}/f(k_{GR})$로 저축률을 구한 뒤 $0 \leq s \leq 1$인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황금률은 한계생산과 감가상각률이 같은 지점이며, $y = Ak^{\alpha}$에서는 황금률 저축률이 자본소득분배율 α와 같다. 이 문항은 $\alpha = 1/2$이므로 $s = 0.5$이다.

NoteBase

문 10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케인즈 소비이론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

② 케인즈 소비이론에 따르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의 함수이다.

③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④ 확률보행(random walk)가설에 따르면, 미래의 소비 흐름을 확률 이론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횡단면 자료에서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확률보행가설이 현재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케인즈 소비이론: 현재 소비는 현재 가처분소득의 함수이며, 소비함수 $C = a + bY$에서 $a > 0$, $0 < b < 1$ 이므로 평균소비성향 $C/Y = a/Y + b$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항상소득가설: 소비는 일시적인 현재소득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생애주기가설: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소비를 평탄화한다.
확률보행가설: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는 새 정보만이 소비를 변화시키므로, 현재 정보로 미래의 소비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이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자율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므로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② O —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 소비를 현재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이 옳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보다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이다. 일시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항상소득을 기준으로 완만하게 반응하므로 현재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미래의 소비 흐름을 …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다. 확률보행가설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정보는 현재 소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미래 소비의 변화는 새 정보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현재 정보로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⑤ X — 틀린 표현은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한다'이다.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소비를 전 생애 자원에 맞추어 평탄화하므로, 횡단면에서 현재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저축 비중이 커지고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⑤는 '소득 증가'가 곧 '평균소비성향 증가'를 뜻한다고 바꿔 놓은 선지이다. 소비 자체가 증가하는 것과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다르다. ④의 '확률'이라는 말도 예측 가능성을 뜻하지 않으며, 확률보행의 핵심은 소비 변화의 체계적 예측 불가능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면 케인즈,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면 프리드먼, 전 생애의 소득과 자산으로 소비를 평탄화하면 생애주기가설, 새 정보 때문에 소비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면 확률보행가설로 판단한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의 절대액이 아니라 C/Y라는 비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케인즈는 현재소득, 프리드먼은 항상소득, 생애주기는 평생자원, 확률보행은 소비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NoteBase

문 10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불변이다.)

① 국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과 같아진다.

②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자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없다.

③ 고정환율제도에서 자국의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통화량 증가를 초래한다.

④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은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⑤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순수출 증가를 초래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완전한 자본이동 아래에서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먼델-플레밍 모형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재화시장·화폐시장·국제수지를 함께 분석하는 모형이다.
완전한 자본이동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과 같은 수준인 $i = i^*$로 유지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도록 통화량을 조절하므로 재정정책은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조정되므로 통화정책은 효과적이지만 확대 재정정책은 통화가치 상승과 순수출 감소로 상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한 자본이동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보다 높거나 낮으면 대규모 자본이 이동하므로 국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과 같아진다.
② O.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통화량을 내생적으로 조절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③ O. 고정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 압력과 자본 유입을 일으킨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 통화를 공급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O. 변동환율제도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내 이자율의 하락 압력과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통화가치 하락은 순수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순수출 증가'이다.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국내 이자율의 상승 압력과 자본 유입을 일으켜 자국 통화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순수출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확대 재정정책은 자국의 순수출 감소를 초래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에서 확대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늘린다는 점만 보고 순수출도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재정 확대에 따른 자본 유입이 자국 통화의 절상을 일으키므로 순수출은 오히려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제도를 구분한다. 고정환율에서는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가 통화량을 바꾸므로 재정정책이 강하고, 변동환율에서는 환율 조정이 순수출을 바꾸므로 통화정책이 강하다. 변동환율에서 확대 재정정책은 통화가치 상승과 순수출 감소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고정환율은 재정정책, 변동환율은 통화정책이 강하다. 변동환율의 재정 확대는 통화가치 상승·순수출 감소이다.

NoteBase

문 110. 갑과 을로 구성된 경제에서 정부는 차입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갑과 을의 효용함수가 $U = C_1C_2$으로 동일하며, 현재 소득이 Y_1, 미래 소득이 Y_2일 때, 갑의 (Y_1, Y_2)는 $(1, 2)$이고 을의 (Y_1, Y_2)는 $(2, 1)$이다. 정부 정책 시행 전과 후의 피셔(I. Fisher)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C_1은 현재 소비, C_2는 미래 소비이다.)

①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자가 된다.

②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이면 을은 대부자가 된다.

③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이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binding)되지 않는다.

④ 정책 시행 후, 이자율이 0에서 0.5로 인상되면 갑은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⑤ 정책 시행 전, 이자율이 0.5에서 0.2로 인하되면 갑은 현재 소비를 늘린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효용극대화로 구한 최적 현재 소비와 현재 소득을 비교하여 차입·대부 여부와 차입제약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효용함수는 $U = C_1C_2$이고, 기간 간 예산제약은 $C_1 + \frac{C_2}{1+r} = Y_1 + \frac{Y_2}{1+r}$이다.
갑의 소득은 $(Y_1, Y_2) = (1, 2)$, 을의 소득은 $(Y_1, Y_2) = (2, 1)$이다.
차입이 금지되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을 넘을 수 없으므로 $C_1 \le Y_1$이다. 제약이 없을 때의 최적 현재 소비가 Y_1보다 크면 차입을 원하므로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사용할 공식

효용극대화의 일계조건은 $C_2 = (1 + r)C_1$이다. 이를 기간 간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최적 현재 소비는
$C_1^* = \frac{1}{2}\left(Y_1 + \frac{Y_2}{1+r}\right)$
이다. 두 소비의 효용지수가 같아 생애자원의 현재가치 중 절반을 현재 소비에 배분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r = 0$일 때 갑과 을의 최적 현재 소비는 모두 $C_1^* = \frac{1}{2}(Y_1 + Y_2) = \frac{3}{2}$이다.
2. 갑은 $\frac{3}{2} > 1 = Y_1$이므로 차입을 원하고, 을은 $\frac{3}{2} < 2 = Y_1$이므로 남는 $\frac{1}{2}$을 대부한다.
3. 갑의 경우 $r = 0.5$이면 $C_1^* = \frac{1}{2}\left(1 + \frac{2}{1.5}\right) = \frac{7}{6} > 1$이므로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4. 정책 시행 전 갑의 최적 현재 소비는 $r = 0.5$일 때 $\frac{7}{6}$, $r = 0.2$일 때 $\frac{1}{2}\left(1 + \frac{2}{1.2}\right) = \frac{4}{3}$이므로 이자율 하락 후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정책 시행 전 $r=0$이면 갑의 최적 현재 소비 $\frac{3}{2}$가 현재 소득 1보다 크다. 갑은 부족한 $\frac{1}{2}$을 차입한다.
② O — 정책 시행 전 $r=0$이면 을의 최적 현재 소비 $\frac{3}{2}$가 현재 소득 2보다 작다. 을은 남는 $\frac{1}{2}$을 대부한다.
③ X — 갑은 $r=0$에서 $\frac{3}{2}$만큼 현재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차입 금지 시 최대 1만 소비할 수 있으므로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틀린 표현인 '구속되지 않는다'는 '구속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r=0.5$에서도 갑의 제약 없는 최적 현재 소비는 $\frac{7}{6}>1$이다. 현재 소득을 넘는 소비를 원하므로 차입제약에 구속된다.
⑤ O — 정책 시행 전 갑의 현재 소비는 이자율이 0.5에서 0.2로 내려가면 $\frac{7}{6}$에서 $\frac{4}{3}$으로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차입을 금지하면 차입자가 사라진다는 점과 차입제약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차입 금지 후 실제 차입은 0이지만, 갑은 제약이 없으면 현재 소득보다 더 소비하려 하므로 제약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고 제약은 구속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약이 없을 때의 C_1^*를 구한 뒤 Y_1과 비교한다. $C_1^* > Y_1$이면 차입자이며 차입 금지 시 제약에 구속되고, $C_1^* < Y_1$이면 대부자이며 차입 금지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차입제약의 구속 여부는 실제 차입액이 아니라 '제약이 없을 때 원하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을 넘는가'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11.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란 순투자가 음(-)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미래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③ 토빈 q가 1보다 작으면, 순투자는 증가한다.

④ 감가상각 충당금의 증가는 이윤의 감소를 초래한다.

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따르면, 기술 진보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할 경우 투자는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투자의 비가역성, 토빈의 q, 감가상각,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이 투자와 이윤에 미치는 방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의 비가역성: 일단 설치한 자본을 원래 비용을 회수하면서 되팔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토빈의 q: 기업이 보유한 자본의 시장가치를 그 자본의 대체비용과 비교한 비율이다. $q > 1$이면 새 자본을 설치할 유인이 커지고, $q < 1$이면 투자 유인이 작아진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높아지면 기업은 목표 자본량과 투자를 늘린다.
감가상각: 자본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가상각 충당금의 증가는 회계상 이윤을 감소시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순투자가 음(-)이 될 수 없음'이다. 비가역성은 설치한 자본을 손실 없이 처분하거나 투자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감가상각이 총투자보다 크면 순투자는 음(-)이 될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미래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이다. 미래 실적 개선은 기업과 기존 자본의 시장가치를 높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토빈의 q는 상승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토빈 q가 1보다 작으면 순투자는 증가한다'이다. $q < 1$이면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대체비용보다 작아 새 자본을 구입할 유인이 약하므로 순투자는 감소한다.

④ O
감가상각 충당금은 자본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반영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비용의 증가는 회계상 이윤을 감소시키므로 옳다.

⑤ X
틀린 표현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할 경우 투자는 감소한다'이다. 기술 진보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목표 자본량이 커지므로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는 투자가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비가역성을 단순히 '음(-)의 순투자 불가능'으로 바꾼 표현이 함정이다. 또한 ②·③·⑤는 미래 실적, 토빈의 q, 자본의 한계생산과 투자 사이의 정상적인 방향을 모두 반대로 서술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래 수익성 상승은 자본의 시장가치와 토빈의 q를 높이고, $q > 1$ 또는 자본의 한계생산 상승은 투자를 늘린다. 감가상각 비용의 증가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회계상 이윤을 줄인다.

암기 포인트

비가역성은 '되돌리기 어려움', $q > 1$은 '투자 확대', 한계생산 상승은 '투자 증가', 감가상각 비용 증가는 '회계상 이윤 감소'이다.

NoteBase

문 112. 균형환율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로 표시한다.)

①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은 양국 통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②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③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주어진 기대환율에서 자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④ 이자율평가설에 의하면 양국 투자수익률의 차이는 환율의 기대변화율과 같다.

⑤ 실질이자율평가설(Real Interest Rate Parity Hypothesis)과 구매력평가설이 항상 성립하면 양국의 실질이자율 차이는 0보다 크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환율·물가·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을 어떤 관계로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매력평가설(PPP): 동일한 재화의 구매력이 국가 간에 같아지도록 명목환율이 양국 물가수준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E = P/P^*$이므로 실질환율 $q = EP^*/P$는 1이다.
이자율평가설(IRP): 국내자산과 외국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지도록 현재 환율이 조정된다는 이론이다. 환율을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로 표시하면 근사적으로 $i - i^* \approx (E^e - E)/E$이다.
실질이자율평가설(RIRP): 국제적으로 실질이자율이 같아지는 관계이다. 따라서 성립할 때 양국의 실질이자율 차이는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구매력평가설은 각 통화의 구매력, 즉 양국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균형환율을 설명한다.
② O — 절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면 $E = P/P^*$이다. 이를 $q = EP^*/P$에 대입하면 실질환율은 1이 된다.
③ O — 기대환율 E^e와 외국 이자율이 주어졌을 때 이자율평가식은 $1 + i = (1 + i^*)E^e/E$이다. 자국 이자율 i가 상승하면 국내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현재 환율 E는 하락한다. 이는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뜻한다.
④ O — 이자율평가설에서는 양국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같아진다. 따라서 양국 명목이자율의 차이는 근사적으로 환율의 기대변화율과 같다.
⑤ X — 틀린 표현은 '양국의 실질이자율 차이는 0보다 크다'이다. 실질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면 양국의 실질이자율은 같으므로 그 차이는 0이다. 올바르게는 '양국의 실질이자율 차이는 0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에서 환율 하락과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의 표시법에서는 E가 외국통화 1단위의 자국통화 가격이므로 E의 하락은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이다. 또한 ⑤의 '0보다 크다'는 실질이자율평가가 뜻하는 실질이자율의 균등화를 정반대로 바꾼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의 표시법을 확인한다.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로 표시할 때 환율 하락은 자국통화 가치 상승이다. 이어서 PPP는 물가와 환율, IRP는 명목이자율과 기대환율, RIRP는 실질이자율의 동일성을 연결한다고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PPP는 물가비율과 실질환율 1, IRP는 이자율 차이와 기대 환율변화율, RIRP는 양국 실질이자율 차이 0이다.

NoteBase

문 113. 소득-여가 모형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C, R) = CR^2$이고, 노동이나 여가를 위해 총 30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비노동 소득은 없다. 소비재 가격이 1, 시간당 임금이 8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노동시간은? (단, C는 소비재, R은 여가 시간이다.)

① 8

② 10

③ 13

④ 15

⑤ 2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간 제약과 예산 제약을 효용함수에 대입한 뒤,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노동시간을 구분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시간은 30시간이고, 여가 시간을 R, 노동시간을 L이라 하면 $L = 30 - R$이다.
소비재 가격이 1이고 시간당 임금이 8이며 비노동 소득이 없으므로 소비량은 $C = 8L = 8(30 - R)$이다.
구해야 하는 값은 여가 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이다.

사용할 공식

시간·예산 제약을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U(R) = 8(30 - R)R^2$
이다. 효용이 최대가 되는 내부해에서는 $U'(R) = 0$이 성립한다. 여가를 늘리면 R^2은 커지지만 노동과 소비가 줄어들므로, 두 효과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 조건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효용함수를 여가 시간만의 함수로 나타낸다.
$U(R) = 8(30 - R)R^2$
2. 여가 시간에 관해 미분한다.
$U'(R) = 8(60R - 3R^2) = 24R(20 - R)$
3. $U'(R) = 0$에서 내부해는 $R = 20$이다. 양 끝점인 $R = 0$과 $R = 30$에서는 소비 또는 여가가 0이 되어 효용이 0이므로 $R = 20$이 효용극대화점이다.
4. 노동시간은
$L = 30 - R = 30 - 20 = 10$
이므로 10시간이다.

선지 판단

① X — 노동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다. $R = 20$을 시간 제약 $L = 30 - R$에 대입하면 $L = 10$이 된다.
② O — 효용극대화 여가 시간이 20시간이므로 노동시간은 $30 - 20 = 10$시간이다.
③ X — 노동시간은 13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다. 13시간을 노동하면 여가는 17시간이 되어 효용극대화 조건 $R = 20$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X — 노동시간은 15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다. 노동과 여가를 각각 절반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함수에서 여가의 지수가 2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⑤ X — 20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이다. 올바른 노동시간은 총 30시간에서 여가 20시간을 뺀 10시간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20시간은 일계조건에서 직접 구한 여가 시간인데, 문제는 노동시간을 묻는다. 또한 총시간을 노동과 여가에 절반씩 배분해 15시간으로 판단하면 효용함수 CR^2에서 여가의 상대적 중요도가 더 크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여가 계산에서는 먼저 $L = T - R$과 소비 제약을 세우고, 이를 효용함수에 대입해 최적 여가 R를 구한 다음, 마지막에 $L = T - R$로 노동시간을 환산한다.

암기 포인트

$U = CR^2$에서는 여가의 지수가 2이므로 총 가용시간의 2/3를 여가에, 1/3을 노동에 배분한다. 총 30시간이면 여가 20시간, 노동 10시간이다.

NoteBase

문 114.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sqrt{L}+\sqrt{K}$이고 생산물가격은 36, 임금은 2, 자본가격은 2이다. 임금이 1로 하락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의 변화분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0

② 63

③ 81

④ 144

⑤ 243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임금 하락 전후의 최적 노동량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물가격은 36이고 생산함수는 $Q=\sqrt{L}+\sqrt{K}$이다.
임금은 2에서 1로 하락한다.
구해야 할 값은 임금 하락 후 노동수요량 자체가 아니라 노동수요량의 변화분이다.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에 대해 가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노동의 최적 투입량은 자본가격이나
자본투입량과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일계조건으로 구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노동의 한계생산은
$MP_L=\frac{\partial Q}{\partial L}=\frac{1}{2\sqrt{L}}$
이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므로 이윤극대화 조건은
$pMP_L=w$
이다. 따라서
$36\cdot\frac{1}{2\sqrt{L}}=w, \qquad L=\left(\frac{18}{w}\right)^2$
가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 한 단위를 추가하여 얻는 수입인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그 노동의 비용인 임금이 같아질 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임금이 2일 때 노동수요량은
$L_0 = \left(\frac{18}{2}\right)^2 = 9^2 = 81$
이다.
2. 임금이 1로 하락한 뒤 노동수요량은
$L_1 = \left(\frac{18}{1}\right)^2 = 18^2 = 324$
이다.
3. 노동수요량의 변화분은
$\Delta L = L_1 - L_0 = 324 - 81 = 243$
이다.

선지 판단

① X — 변화분이 0이라는 값은 임금 하락에도 노동수요가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므로 틀리다. 올바른 변화분은 $324 - 81 = 243$이다.
② X — 63은 임금 하락 전후의 최적 노동량을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63이 아니라 $324 - 81 = 243$이 올바른 값이다.
③ X — 81은 임금이 2일 때의 기존 노동수요량 L_0일 뿐 변화분이 아니다. 변화분은 81이 아니라 243이다.
④ X — 144는 임금이 1일 때의 최적 노동량을 $18^2 = 324$로 계산하지 못한 값이다. 144가 아니라 $324 - 81 = 243$이 올바른 변화분이다.
⑤ O — 임금 하락 전 노동수요량은 81, 하락 후 노동수요량은 324이므로 변화분은 $324 - 81 = 243$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81은 임금 하락 전 노동수요량이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함정이다. 문제는 새로운 노동수요량 324도, 기존 노동수요량 81도 아닌 두 수량의 변화분을 묻는다. 또한 임금이 절반이 되면 $L = (18/w)^2$에 따라 노동수요량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기업의 요소수요 문제에서는 먼저 $pMP_L = w$를 세워 요소수요함수를 구하고, 가격 변화 전후의 최적 투입량을 각각 계산한 뒤, 변화분이면 반드시 새로운 값에서 기존 값을 뺀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은 $pMP_L = w$이다. 이 문항에서는 $L = (18/w)^2$이므로 임금이 절반이 되면 노동수요량은 4배가 된다.

NoteBase

문 115.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min\{\sqrt{L}, 10\}$이고, 생산물(Q)의 가격은 1, 임금률은 w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노동수요량은? (단, L은 노동이다.)

① $L = 10 + \frac{1}{w^2}$
② $L = 100 + \frac{1}{2w^2}$
③ $L = \min\left\{\frac{1}{\sqrt{w}}, 10\right\}$
④ $L = \min\left\{\frac{1}{w^2}, 100\right\}$
⑤ $L = \min\left\{\frac{1}{4w^2}, 100\right\}$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임금률의 일치를 이용하고, 생산함수의 생산량 상한이 노동수요에 주는 제약까지 반영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물 가격이 1이므로 총수입은 Q와 같다.
$0 \leq L \leq 100$에서는 $Q = \sqrt{L}$이고, $L \geq 100$에서는 $Q = 10$이다.
임금률이 양수일 때 $L > 100$은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임금비용만 증가시키므로 선택할 이유가 없다.

사용할 공식

생산 상한에 도달하기 전 이윤은
$\pi(L) = \sqrt{L} - wL$
이다. 내부해에서는
$\frac{d\pi}{dL} = \frac{1}{2\sqrt{L}} - w = 0$
이 성립한다. 이는 생산물 가격이 1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 $1/(2\sqrt{L})$이 임금률 w와 같아지는 조건이다.

계산 과정

한계조건을 풀면
$\frac{1}{2\sqrt{L}} = w \quad \Rightarrow \quad \sqrt{L} = \frac{1}{2w} \quad \Rightarrow \quad L = \frac{1}{4w^2}$
이다. 그러나 생산량은 $L = 100$에서 이미 상한 10에 도달한다. 따라서 노동수요는 내부해와 상한 노동량 가운데 작은 값인
$L^d = \min\left\{\frac{1}{4w^2}, 100\right\}$
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L = 10 + 1/w^2$처럼 생산량 상한 10과 노동량을 더하는 식은 한계조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L = \min\{1/(4w^2), 100\}$이다.
② X. $L = 100 + 1/(2w^2)$는 노동 상한 100에 내부해를 더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두 값을 더하지 않고 $L = \min\{1/(4w^2), 100\}$로 비교한다.
③ X. $1/\sqrt{w}$는 $1/(2\sqrt{L}) = w$를 잘못 푼 값이고, 10은 생산량 Q의 상한이지 노동량 L의 상한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내부해가 $1/(4w^2)$, 노동량 상한이 100이다.
④ X. $1/w^2$는 한계생산의 계수 1/2를 누락한 값이다. 올바르게 제곱하면 내부해는 $1/(4w^2)$이므로 $L = \min\{1/(4w^2), 100\}$이다.
⑤ O. 한계조건에서 구한 내부해 $1/(4w^2)$와 생산 상한에 대응하는 노동량 100 중 작은 값을 선택한 식이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생산량의 상한 10을 노동량의 상한으로 착각하는 것과, $1/(2\sqrt{L}) = w$를 풀 때 2를 제곱하여 4가 된다는 점을 놓치는 것이다. 생산함수에서 $Q = 10$이 시작되는 노동량은 $\sqrt{L} = 10$, 즉 $L = 100$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한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에서 한계수입생산과 요소가격을 같게 하여 내부해를 구한다. 그다음 생산함수의 상한에 대응하는 요소투입량을 구하고, 내부해가 그 제약을 넘으면 경계값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Q = \min\{\sqrt{L}, 10\}$에서는 내부해가 $1/(4w^2)$, 노동 상한이 $10^2 = 100$이므로 두 값의 최솟값이 노동수요이다.

NoteBase

문 116. 복숭아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고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는 $Q_S = 200L - L^2$이다. 복숭아 개당 가격은 3, 기업 수는 30, 총노동공급량은 500일 때 균형임금은? (단, Q_S는 복숭아 생산량, L은 노동이다.)

① 100
② 300
③ 400
④ 500
⑤ 9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인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의 일치를 이용해 균형임금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 $Q_S = 200L - L^2$
복숭아 가격: $P = 3$
기업 수: 30개
총노동공급량: 500
구해야 할 값: 총노동수요량이 500이 되는 균형임금 w

사용할 공식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 = \frac{dQ_S}{dL} = 200 - 2L$이다.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 조건은 $w = P \times MPL$이므로
$w = 3(200 - 2L) = 600 - 6L$
이다. 산출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이므로 기업은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노동을 고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업 한 곳의 노동수요는
$L = \frac{600 - w}{6}$
이다. 동일한 기업이 30개이므로 시장 전체 노동수요는
$L_D = 30 \times \frac{600 - w}{6} = 3000 - 5w$
이다. 균형에서는 총노동수요와 총노동공급이 같으므로
$3000 - 5w = 500$
$5w = 2500$
$w = 500$
이다.

선지 판단

① X — 임금이 100이면 총노동수요는 $3000 - 5(100) = 2500$으로 노동공급 500보다 많다. 균형임금은 100이 아니라 500이다.
② X — 임금이 300이면 총노동수요는 $3000 - 5(300) = 1500$으로 노동공급 500보다 많다. 균형임금은 300이 아니라 500이다.
③ X — 임금이 400이면 총노동수요는 $3000 - 5(400) = 1000$으로 노동공급 500보다 많다. 균형임금은 400이 아니라 500이다.
④ O — 임금이 500이면 총노동수요는 $3000 - 5(500) = 500$이 되어 총노동공급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임금 900은 노동을 전혀 투입하지 않을 때의 최대 한계생산가치 600보다도 높으므로 기업의 노동수요가 0이 된다. 균형임금은 900이 아니라 500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함수 자체에 가격을 곱하거나 평균생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함수를 미분한 한계생산에 산출물 가격을 곱해야 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노동수요를 구한 뒤 기업 수 30을 반영해 시장노동수요로 합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노동시장 문제에서는 생산함수 미분으로 MPL을 구하고, $w = P \times MPL$로 개별 노동수요를 만든 뒤, 기업 수를 곱한 시장노동수요와 총노동공급을 일치시킨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는 $w = P \times MPL$, 시장노동수요는 개별 노동수요의 합이다.

NoteBase

문 117. 실업자의 취업률이 40%, 취업자의 실직률이 10%일 때, 실업자가 취업하는 수와 취업자가 실직하는 수가 일치하는 균제상태(steady-state)의 실업률(%)은?

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는 인원과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같은 균제상태에서 실업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실업자의 취업률은 $f = 0.4$, 취업자의 실직률은 $s = 0.1$이다.
실업자 수를 U, 취업자 수를 E라 하면 균제상태 조건은 취업자 유입과 실업자 유입이 같은 $fU = sE$이다.
구해야 할 값은 노동력 $U + E$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u = \frac{U}{U+E}$이다.

사용할 공식

균제상태 실업률은
$u = \frac{s}{s+f}$
이다. 균제상태에서는 $fU = sE$이고 노동력은 $U + E$이므로 이 식을 사용할 수 있다.

계산 과정

$u = \frac{0.1}{0.1+0.4} = \frac{0.1}{0.5} = 0.2$
따라서 균제상태 실업률은 20%이다.

선지 판단

① X — 10%는 취업자의 실직률이지 균제상태 실업률이 아니다. 10%가 아니라 20%가 옳다.
② O — 계산 결과 $u = 0.2$이므로 균제상태 실업률은 20%이다.
③ X — 30%는 $\frac{s}{s+f}$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는다. 30%가 아니라 20%가 옳다.
④ X — 40%는 실업자의 취업률이지 균제상태 실업률이 아니다. 40%가 아니라 20%가 옳다.
⑤ X — 실직률과 취업률을 단순히 더한 50%는 실업률이 아니다. 50%가 아니라 $\frac{10}{10+40} \times 100 = 20\%$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취업률 40%나 실직률 10%를 그대로 실업률로 고르는 것이 함정이다. 두 전환율은 각각 실업자와 취업자라는 서로 다른 집단에 적용되므로, 균제상태의 흐름 조건 $fU = sE$를 먼저 세워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업자의 취업률을 f, 취업자의 실직률을 s로 놓고 $fU = sE$를 세운 뒤, 균제상태 실업률 $u = \frac{s}{s+f}$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제상태 실업률은 '실직률 ÷ (실직률 + 취업률)'인 $u = \frac{s}{s+f}$이다.

문 118.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인즈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②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한계비효용보다 높다.

③ 고전학파는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이 일치할 때 노동수요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④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때,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

⑤ 실질임금 상승으로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노동시장 관점, 임금 경직성이 있는 노동수요,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학파의 노동수요: 기업은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이 일치하는 지점, 즉 $w/P = MPL$에서 고용량을 정한다.
비자발적 실업: 현재의 임금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태이다.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게 경직되어 있으면 실제 고용량은 노동수요에 의해 정해진다.
노동공급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임금 상승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지만, 소득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케인즈는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노동시장이 항상 완전고용에 이른다는 견해를 부정하고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인정한다.
② O. 임금이 균형 수준보다 높게 경직된 상태에서는 실제 고용량이 노동수요곡선 위에서 정해져 실질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이 일치한다. 이 고용량은 완전고용보다 작으므로 노동의 한계비효용은 실질임금보다 낮고,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의 한계비효용보다 높다.
③ O.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은 실질임금 w/P과 노동의 한계생산 MPL이 일치할 때까지 노동을 고용하므로 이 조건이 고전학파의 노동수요를 결정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량은 감소한다'이다. 임금이 하방 경직되어 실질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고용량은 증가한다.
⑤ O. 실질임금 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소득 증가로 여가 수요가 늘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이는 후방굴절 노동공급의 원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기술혁신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상으로 '고용량 감소'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 문항은 임금이 경직된 노동수요곡선에서 노동의 한계생산 상승 효과를 묻는다. 이 조건에서는 같은 실질임금으로 고용할 노동량이 늘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경직성과 비자발적 실업이 제시되면 실제 고용량은 노동수요가 정한다. 실질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고용량도 증가한다.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가 크면 증가하고 소득효과가 크면 감소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직임금 아래 *MPL* 상승은 노동수요·고용 증가,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 우세는 노동공급 감소이다.

NoteBase

문 119. 실질임금의 경직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실질임금이 경직적이어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업은 사라진다.

②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외부자는 내부자보다 낮은 실질임금에도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

③ 효율적 임금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높은 실질임금을 유지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④ 암묵적 계약이론에 따르면, 근로자와 기업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정된 실질임금을 선호할 수 있다.

⑤ 암묵적 계약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실질임금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제고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내부자·외부자 이론, 효율적 임금이론, 암묵적 계약이론의 핵심 논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자·외부자 이론: 현재 고용된 내부자가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체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더 낮은 임금에 일하려는 외부자가 있어도 임금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고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효율적 임금이론: 기업이 근로자의 노력·생산성 향상, 이직 감소 등을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암묵적 계약이론: 위험회피적인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잘 부담하는 기업이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안정적인 실질임금을 정하는 일종의 보험 계약 이론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실질임금이 경직적이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아 외부자의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구조적 실업은 사라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실질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이다.

② O
외부자는 내부자보다 낮은 실질임금에도 취업하려 하지만, 내부자의 임금 결정력과 내부자 교체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 있다.

③ O
효율적 임금이론에서는 높은 실질임금이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업이 높은 임금을 유지한다.

④ O
위험회피적인 근로자는 소득의 안정성을 선호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양자는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실질임금을 지급하는 암묵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⑤ O
기업이 일정한 실질임금을 보장하면 근로자는 소득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보험 기능은 근로자의 기대효용, 즉 근로자의 이익을 높인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임금 경직성이 고용 안정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을 실업 해소로 잘못 연결한 데 있다. 내부자에게 유리한 임금 유지가 외부자의 취업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금 경직성은 실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부자·외부자는 '내부자의 임금 영향력과 외부자의 실업', 효율적 임금은 '높은 임금으로 생산성 향상', 암묵적 계약은 '기업이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안정적 임금 보장'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내부자·외부자=실업 지속, 효율적 임금=생산성 향상, 암묵적 계약=임금 보험이다.

NoteBase

문 120.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완전경쟁 노동시장과 비교했을 때,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률이 (ㄱ)하고, 고용량이 (ㄴ)한다.

① ㄱ: 상승, ㄴ: 감소

② ㄱ: 하락, ㄴ: 증가

③ ㄱ: 상승, ㄴ: 불변

④ ㄱ: 하락, ㄴ: 감소

⑤ ㄱ: 불변, ㄴ: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 노동시장과 수요독점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률 및 고용량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완전경쟁 노동시장: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임금률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수요독점 노동시장: 노동의 수요자가 하나이므로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하며, 근로자 한 명을 더 고용할 때의 한계요소비용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률보다 높다.
따라서 수요독점 기업은 한계요소비용과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이 일치하는 지점까지만 고용한다. 그 결과 완전경쟁시장보다 고용량이 적고, 그 고용량에서 노동공급곡선으로 결정되는 임금률도 낮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상승'이 틀리고 ㄴ의 '감소'만 옳다. 수요독점에서는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이 감소한다.

② X
ㄴ의 '증가'가 틀리고 ㄱ의 '하락'만 옳다. 수요독점에서는 고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③ X
'임금률 상승'과 '고용량 불변'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이 감소한다.

④ O
수요독점 기업은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고용을 제한하므로,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이 감소한다.

⑤ X
'임금률 불변'과 '고용량 증가'가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임금률이 하락하고 고용량이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수요독점이라는 말만 보고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임금률만 낮춘다고 판단하면 고용량 변화를 놓치기 쉽다.
수요독점 기업은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한계요소비용을 고려해 고용량도 완전경쟁 수준보다 줄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상향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한 수요독점에서는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률보다 높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그러면 완전경쟁과 비교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감소한 고용량에 대응하는 임금률도 하락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노동 수요독점은 완전경쟁보다 저임금·저고용이다.

NoteBase